

---

# I

## 권역별 경제 동향

1. 수도권	9
2. 동남권	17
3. 충청권	25
4. 호남권	33
5. 대경권	41
6. 강원권	49
7. 제주권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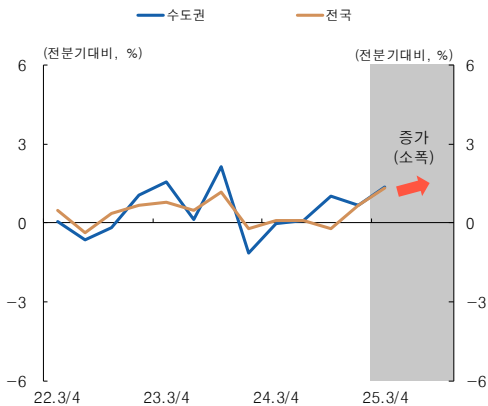
# 1. 수도권

## (1) 개황

### 수도권 경기 소폭 개선

2025년 하반기 중 수도권 경기는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며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수출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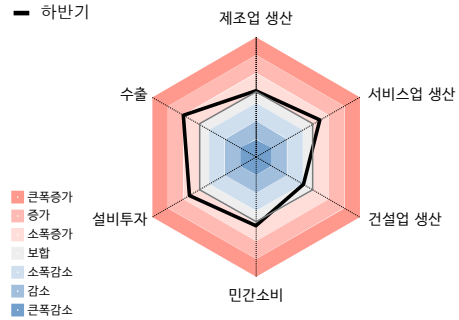
### 수도권 GRDP<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거래량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출생아수(7~10월)는 증가하였고 인구(7~11월)는 순유입이 지속되었으나 순유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축소되었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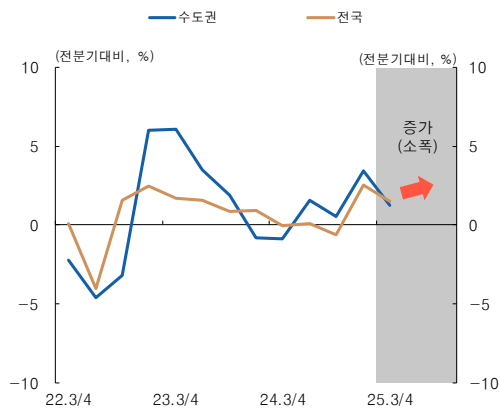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산

###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건조한 성장세가 지속되었고 디스플레이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광제조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수요 확대<sup>1)</sup> 등으로 상반기 대비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하반기 중 주요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100%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D램은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설비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서버 교체주기 도래<sup>2)</sup> 등으로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낸드플래시는 AI 서버용 스토리지 수요<sup>3)</sup> 확대로 eSSD 등에 들어가는 기업용 고사양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 증가를 견인하였다.

자동차는 국내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 등으로 내수 판매가 감소하였고, 하반기 신차 라인업 공백 등으로 상반기 대비 생산 및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친환경차 수출은 건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종을 중심으로 미국<sup>4)</sup>, 유럽, 중동 지역에서의 시장 수요가 확대되었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국내 제조업체의 패널 공급비중이 확대<sup>5)</sup>되며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업체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sup>6)</sup>한 OLED의 전자 기기 탑재가 가속화됨에 따라 O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다만, 미

<sup>1)</sup> 2025년 하반기 중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27로 상반기(179.3) 대비 13.0% 상승하였다.(월평균 기준)

<sup>2)</sup> 최근 데이터센터용 범용 D램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제조업체들이 HBM 생산비중을 높이면서 범용 D램 생산능력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범용 D램의 가격이 하반기 들어 급등하였다.(DDR5 16Gb 고정거래가격 상반기 대비 +149.5%, DRAMeXchange)

<sup>3)</sup> 기존에는 스토리지 매체로 HDD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HDD 공급 부족 및 전력비용 절감을 위한 저전력 반도체 선호 등으로 낸드플래시 기반 eSSD로의 대체 수요가 증가하였다.

<sup>4)</sup>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 시행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향 전기차 수출은 당초 2023년 종료 예정이었던 세액 공제 혜택이 2025년 9월말 조기종료되면서 감소하였다. 다만, 전기차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판매호조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sup>5)</sup> 미국 ITC의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2025.8월)에서 중국 BOE사의 OLED 패널 수입 금지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고객사(애플, 삼성 등)의 신제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100%에 가까운 공급비중을 차지했다.

<sup>6)</sup> 2025년 11월 OLED 패널 특허 분쟁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품질 미흡으로 BOE의 아이폰 17 OLED 공급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에 LCD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였으며 LG디스플레이는 광주 LCD 공장을 중국 TCL사에 매각하면서 25.4월부터 TV용 LCD 생산을 종료하는 등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의 OLED 생산 집중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의 대중관세 부과<sup>7</sup> 영향에 따라 고객사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중간재인 패널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수출액은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4/4
수출	-2.4	1.5	-2.5	7.0	-3.2	13.2
반도체	4.8	2.7	-10.0	13.7	9.5	27.9
자동차	-19.8	13.3	5.7	8.1	-10.0	6.7
디스플레이	4.2	-10.5	-16.7	-7.0	15.8	-20.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 TPU 등 추론용 AI칩, 소버린 AI<sup>8</sup> 등에 탑재될 메모리 반도체의 추가적인 수요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2026년 상반기부터 HBM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공급부족 상황이 해소될 정도의 대규모 생산능력 확보는 2027년 이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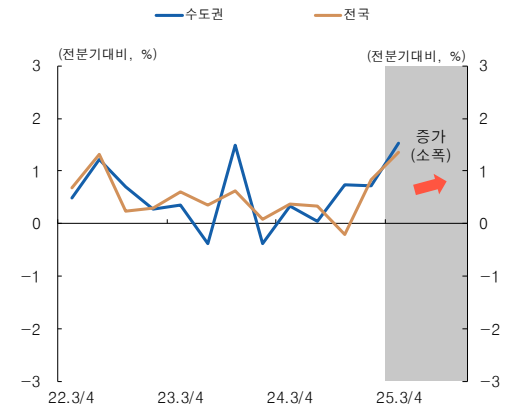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및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주요 차종의 신차 출시<sup>10</sup>도 예정되어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IT 제품의 OLED 채택 증가, 미국의 대중관세 조정<sup>11</sup> 이후 고객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른 패널단가 개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등 이벤트 특수에 따른 신수요 발생 등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증시호조와 기업대출 증가세 등으로 금융·보험업이 증가하였고, 소비쿠폰 지급 효과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또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sup>7</sup> 미국이 애플의 주요 제조지인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애플이 수익성 방어를 목적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에 패널 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하반기 OLED 수출물가지수는 상반기(58.06, 달러기준, 월평균) 대비 2.6% 하락하였다.

<sup>8</sup> 한 국가가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역량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관련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sup>9</sup>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최근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참조

<sup>10</sup> 쉐보레 하이브리드, EV2, 텔룰라이드 하이브리드(북미) 등이 2026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sup>11</sup> 2025년 11월 미 정부는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금융·보험업은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기업대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증가하였다.<sup>12</sup> 숙박·음식점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효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sup>13</sup> 및 소비자심리<sup>14</sup> 개선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sup>15</sup> 도소매업은 오프라인 부문에서 슈퍼마켓,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부문에서도 판매 증가세가 확대되며 소폭 증가하였다.<sup>16</sup>

반면, 운수업은 여객 및 항공화물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가운데, 해운 물동량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sup>17</sup> 부동산업은 정부의 6.27 및 10.15 대책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거래량의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는 등 거래 여건이 제한되었으나, 수도권 주택 분양실적 개선 및 전월세 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sup>18</sup>

서비스업 업종별 GRDP<sup>1)2)</sup>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도소매	[16.2]	-1.6	0.4	1.4	1.1	2.0
부동산	[11.7]	-1.0	0.2	-0.2	1.8	1.2
금융·보험	[10.6]	3.0	-0.5	2.2	1.1	2.0
운수	[6.2]	1.4	0.7	-0.7	0.4	0.5
숙박·음식점	[3.8]	-3.0	0.7	-1.1	1.0	1.9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4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 소비 회복세 지속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여객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항공 및 해운 화물 수요도 뒷받침되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보험업은 증시 호조와 기업대출 증가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매수심리 및 거래 여건의 제약으로 매매거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sup>12</sup> KOSPI 증가(반기평균): 24년 하반기 2,604 → 25년 상반기 2,615 → 하반기 3,588  
 증시 투자자 예약금·신용융자 증가율(% 전기 말잔 대비): 25년 상반기 +27.2 → 하반기 +27.3  
 예금은행 기업대출 증가율(% 전기 말잔 대비): 25년 상반기 +1.8 → 하반기 +2.2

<sup>13</sup> 방한 외래관광객(반기 합계, 명): 24년 하반기 867만 → 25년 상반기 883만 → 25년 7~11월중 859만(24년 7~11월중 740만)

<sup>14</sup> 소비자심리지수(CCSI, 월평균: (전국) 25년 상반기 97.4 → 하반기 110.7, (경기) 25년 상반기 96.4 → 하반기 110.1, (인천) 25년 상반기 92.5 → 하반기 109.2

<sup>15</sup> 25년 하반기 중 수도권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 이하 동일)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여 25년 상반기(-2.1%)대비 증가 전환되었다.

<sup>16</sup> 25년 하반기 중 수도권 연쇄점(소매점)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여 상반기(+8.4%)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5년 하반기(7~11월) 중 온라인쇼핑몰 판매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하여 상반기(2.2%)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17</sup> 25년 하반기(7~11월) 중 인천공항의 화물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상반기 +3.2%)하며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인천 및 평택·당진항의 해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상반기 -4.7%)하며 증가 전환하였다.

<sup>18</sup>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실적(% 기간중 누계, 전년동기대비): 25년 상반기 -18.4 → 하반기(7~11월) -0.4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현황(% 전년동기 말잔 대비): '25년 상반기(6월) +52.1 → 하반기(11월) +13.2  
 수도권 주택 전월세거래량(% 기간중 누계, 전년동기대비): 25년 상반기 +1.1 → 하반기(7~11월)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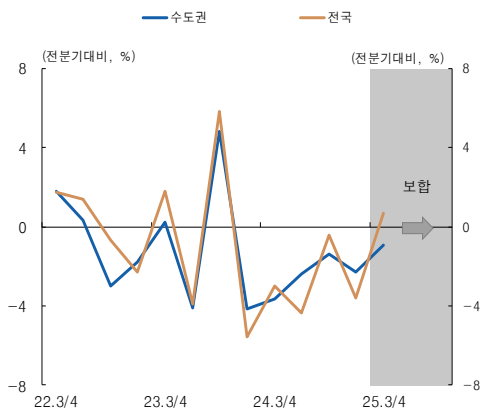
주택 분양실적 개선 및 전월세 거래량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AI 관련 인프라투자와 SOC 투자 확대도 건설업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 생산 보험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보험 수준을 보였다.

### 건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대규모 공사 착공 등의 영향으로 토목 부문에서 건설기성액이 극심한 침체기에서 벗어나 반등<sup>19)</sup>하였으나, 건축 부문의 회복 지연<sup>20)</sup>으로 총기성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권<sup>21)</sup>에 머물면서 상반기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증가했던 수주 물량이 시차를 두고 공사물량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건축부문에서의 건설

<sup>19)</sup> 토목부문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25년 상반기 -11.4 → 하반기(7~11월) +0.7

<sup>20)</sup> 건축부문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25년 상반기 -9.9 → 하반기(7~11월) -6.4

<sup>21)</sup> 총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25년 상반기 -10.3 → 하반기(7~11월) -4.5

### (3)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및 소비진작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화 및 서비스 소비 모두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승용차 및 가전·전자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준내구재는 패션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의약품,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sup>22</sup>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sup>23</sup>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하반기 중 설비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 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자동차는 해외 현지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생산설비 증설<sup>24</sup>을 추진 중으로 국내 설비투자는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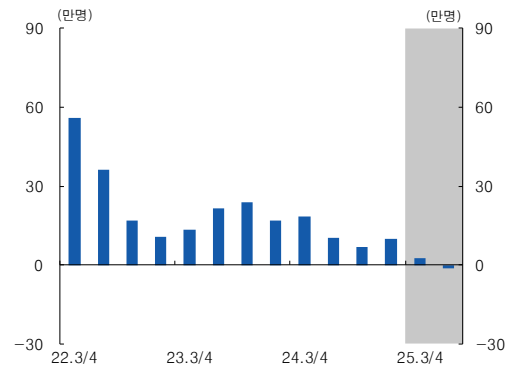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6만명 증가하여 상반기(8.3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취업자수가 증가 전환된 반면, 경기 및 인천지역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sup>25</sup>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sup>26</sup>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sup>27</sup>의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임금근로자<sup>28</sup>의 경우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22</sup> 25년 하반기 중 수도권 자동차 부문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며 상반기 하락(-5.6%)에서 증가로 전환하였고 가전 부문은 1.3% 감소하여 상반기(-5.8%)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25년 하반기 중 수도권 의복 부문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면서 상반기(-5.5%) 대비 증가 전환하였다.

25년 하반기 중 수도권 보건위생 및 음식료품 부문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 9.2% 증가하여 상반기(각각 -2.5%, +2.5%)대비 증가 전환 및 상승폭 확대가 관찰되었다.

<sup>23</sup> 최근 신규 및 증설 공장은 대부분 HBM 생산라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sup>24</sup> 기아차는 유럽지역 현지 판매를 위해 연간 전기차 18만대 생산을 목표로 슬로바키아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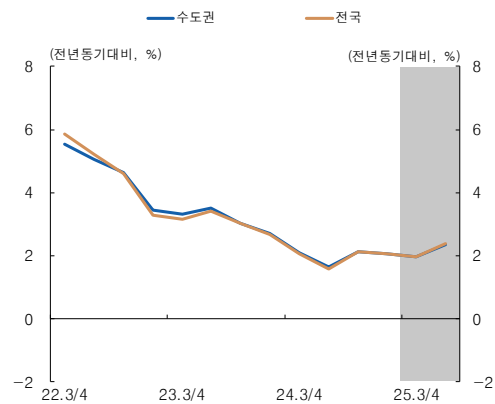
<sup>25</sup>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및 건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각각 66만명 및 56만명 감소하면서 상반기(제조업 -14.8만명, 건설업 -9.1만명)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 (5)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보합

2025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하여 상반기(+2.1%)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가격(25년 상반기 +1.1% → 하반기 +0.7%)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농축수산물<sup>29</sup> 가격(25년 상반기 +1.9% → 하반기 +3.9%) 상승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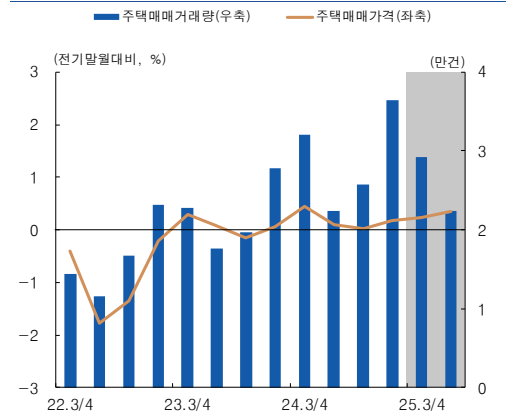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 (6)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거래량 증가세 둔화

2025년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 대비 0.4% 상승하여 상반기(+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매매거래량(25.7~11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2만건 증가(+8.3%) 하여 상반기(0.7만건, +30.8%) 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미분양주택 수는 다시 증가<sup>30</sup>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sup>31</sup> 가격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15대책<sup>32</sup> 시행 이후 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10월 이후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과 거래량<sup>2)</sup>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4/4분기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sup>26</sup>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69만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35.9만명)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사업개입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25년 상반기 +23.3만명 → 하반기 +11.8만명)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sup>27</sup> 2025년 하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59만명 감소하여 상반기(-4.1만명)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25년 상반기 -0.6명 → 하반기 -4.8만명)

<sup>28</sup> 2025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0.8만명 증가하여 상반기(+12.4만명)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상용근로자 취업자수: 25년 상반기 +15.5만명 → 하반기 +9.1만명)

<sup>29</sup> 2025년 하반기 중 수도권 곡물 가격(월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15.2%로 상반기(+4.0%)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sup>30</sup> 11월 말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1.7만호로 7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1월에 소폭 하락하였다(25년 1월 2.0만호 → 3월 → 1.7만호 → 6월 1.4만호 → 7월 1.3만호 → 8월 1.5만호 → 9월 1.5만호 → 10월 1.8만호 → 11월 1.7만호).

<sup>31</sup> 하반기 중 수도권(0.4%) 및 서울(0.8%) 지역이 전국(0.2%)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가운데 과천시(1.7%), 성남시(1.4%), 서울 마포구(1.2%), 용산구(1.4%), 성동구(1.8%)의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이 전기말월대비 상승하였다.

## (7) 인 구

###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입자 수 축소

16

2025년 하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2,60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만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2만명)은 감소하였으나, 경기와 인천은 각각 3.5만명 및 3.1만명 증가했다. 7~10월 중 출생아수는 4.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천명(+6.2%) 늘어나며, 상반기(+9.0%)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2025년 7~11월 중 +0.6만명으로 순유입이 지속되었으나 순유입자 수는 전년동기(+1.1만명)대비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1.2만명, 1.1만명의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서울은 1.8만명의 순유출을 나타냈다.

####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sup>1)</sup>

	(천명)				
	2023		2024		2025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인구수(만명) <sup>2)</sup>	2,601	2,604	2,605	2,608	2,608 (3.4)
출생아수	58.0	62.8	65.4	68.4	47.5 <sup>3)</sup> (2.8)
순이동 <sup>4)</sup>	17.3	30.4	14.8	31.2	5.8 <sup>3)</sup> (-5.2)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7~10월 중, 순이동은 7~11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32</sup>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주택담보대출한도 차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10.15) 발표 후에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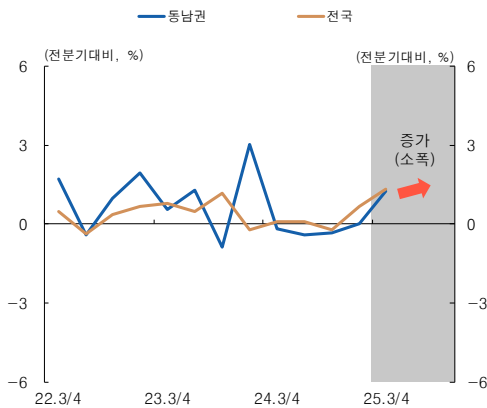
## 2. 동남권

### (1) 개 황

#### 동남권 경기 소폭 개선

2025년 하반기 중 동남권 경기는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 건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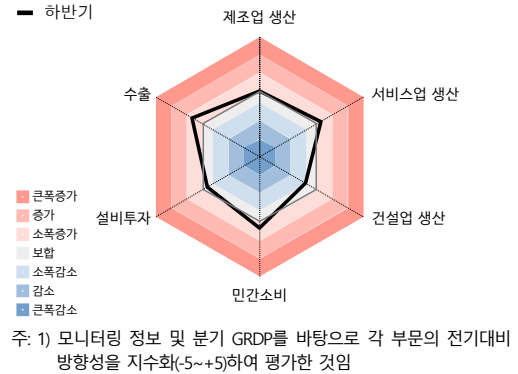
#### 동남권 GRDP<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상승 전환하였다. 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출생아수(7~10월)는 증가하였고 인구 순유출(7~11월) 폭도 축소되었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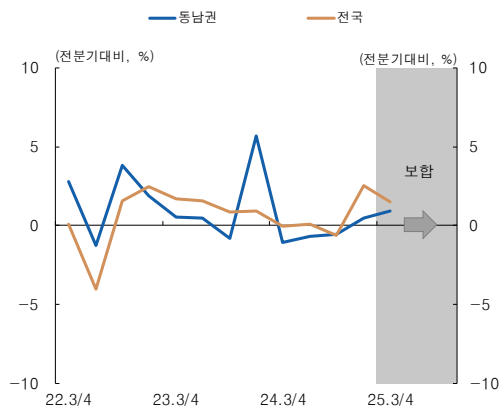


## (2) 생산

### 제조업 생산 보합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과 석유정제는 각각 양호한 수주잔량과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 등으로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철강 및 금속가공은 관세 부과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석유화학도 낮은 수익성이 지속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다.

#### 광제조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조선은 양호한 수주잔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숙련도 제고에 따른 인력부족 완화, 높은 신조선가<sup>33</sup>로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양산 지속 등으로 생산이 소

폭 증가하였다. 2025년 하반기 말 동남권 조선업체의 수주잔량은 상반기 말(2,685.1만CGT) 대비 6.7% 증가한 2,865.3만CGT로,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수주가 지속되면서 동남권 주요 조선업체들은 약 2~3년치의 수주잔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중 원활한 선박 인도에 힘입어 동남권 일평균 선박 수출액은 상반기(0.8억달러) 대비 27.3% 증가한 1.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석유정제의 경우 글로벌 정유업체들의 설비폐쇄 및 가동차질<sup>34</sup> 등으로 정제마진이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생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25년 4/4분기 중 일부 공장의 안전사고<sup>35</sup>로 가동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 증가폭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내수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신차효과 지속<sup>36</sup>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25년 3/4분기 중 파업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수출 감소 등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5년 하반기 중 동남권 자동차 일평균 수출액은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상반기(1.2억달러) 대비 11.3% 감소한 1.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철강 및 금속가공은 주요 전방산업인 건설업 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도 손익분기점을 하

<sup>33</sup> 신조선가지수(1988.1월=100, Clarksons) : 2020년 125.6 → 2022년 161.8 → 2024년 189.2 → 2025년 184.7

<sup>34</sup>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일부 노후 정제설비가 폐쇄되었으며, 드론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정제설비의 가동차질도 발생하였다.

<sup>35</sup> SK에너지는 2025년 4/4분기 정기보수를 진행하던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설비보수 기간이 연장되면서 생산중단이 장기화되었다.

<sup>36</sup> 르노자동차는 2024년 9월 출시된 '그랑 콜레오스' 모델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2025년 중 내수판매가 전년대비 31.3% 증가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하는 낮은 수익성 지속, 업황 부진 장기화에 따른 일부 공장의 가동중단 등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4/4
수출	0.1	0.8	-1.0	1.5	-2.2	3.5
선박	21.3	16.2	11.4	-13.6	22.7	24.4
석유제품	1.8	-14.8	11.0	-7.9	10.3	-12.6
자동차	-22.9	14.4	-5.5	3.7	-17.2	10.8
철강금속	-2.1	0.9	-8.4	7.1	-8.0	10.2
석유화학	0.8	-5.9	-0.9	-7.2	-3.8	-10.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와 석유정제는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미국 내 현지생산이 확대되었으나 신차 출시,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정책<sup>37</sup>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정제도 글로벌 공급 제한<sup>38</sup>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석유정제 업체들의 가동률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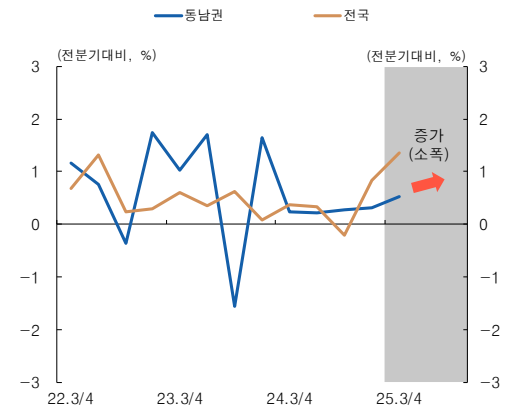
조선은 2025년 하반기 수준의 생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호한 수주잔량 등 업황 호조가 지속되었으나 도크 등 생산설비 가동률이 2025년 하반기 중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6년 상반기에는 전기와 비슷한 생산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및 금속가공과 석유화학은 업황 부진이 지속되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의 환경규제 시행<sup>39</sup>이 비용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석유화학 역시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업황개선이 지연될 전망이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은 증가했으나 부동산업은 소폭 감소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서비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sup>37</su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 26.1.1일)

<sup>38</su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동 차질을 겪고 있는 러시아 정제설비는 2026년 1/4분기까지 가동이 제한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sup>39</sup>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본격 시행되어 유럽연합(EU) 내에서 연간 50톤 이상의 철강 등을 수입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대해 비용이 부과된다. 다만 실제 비용 지출(인증서 구매 방식)은 2027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도소매업은 소비쿠폰<sup>40</sup> 등 정부의 대규모 소비 진작책, 소비심리 호전<sup>41</sup> 등으로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며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 역시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시행<sup>42</sup>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지역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sup>43</sup>되며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2025년 상반기 중 미국 관세정책 강화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front loading) 등의 영향으로 항만 물동량<sup>44</sup>이 줄어들었으나, 항공 여객 수송<sup>45</sup>과 내륙 물동량<sup>46</sup>이 늘어나며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sup>47</sup>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sup>48</sup> 부진이 지속되며 소폭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업종별 GRDP<sup>1)2)</sup>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부동산	[11.3]	-1.0	-1.0	-0.6	-0.5	-0.4
도소매	[11.1]	-0.9	0.5	1.7	-0.6	1.9
운수·창고	[10.2]	0.7	0.1	1.2	3.7	0.9
숙박·음식점	[5.1]	-0.6	0.4	-0.6	-0.5	1.1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내는 2024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일부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운수업은 미 관세 부과 영향 지속 등으로, 부동산업은 높은 수준의 미분양 주택물량 등으로 하반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sup>40</sup> 정부는 2025년 7~10월 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2025년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1인당 15~55만원 지급하였다.

<sup>41</sup>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월평균)는 각각 2025년 상반기 100.0, 95.9, 98.8에서 하반기 114.2, 108.8, 113.4로 상승하였다.(한국은행)

<sup>42</sup> 정부는 국내 여행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중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상품 할인 등을 제공하였다.

<sup>43</sup> 2025년 7~11월 중 동남권 외부방문자(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하여 상반기(8.7%)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44</sup> 2025년 7~11월 중 부산·울산·마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월평균)은 상반기대비 4.4% 감소, 전년동월대비 0.01% 감소하였다.(해양수산부)

<sup>45</sup> 2025년 하반기 중 김해·울산·사천 공항의 여객 인원(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여 상반기(4.5%)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한국공항공사)

<sup>46</sup> 2025년 하반기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영업소의 대형화물차(4, 5종) 통행량(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여 상반기 하락(-1.3%)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한국도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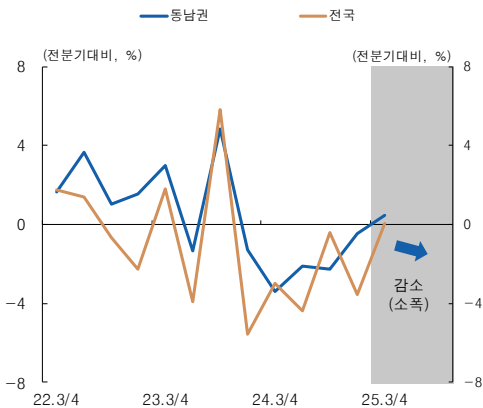
<sup>47</sup> 2025년 7~11월 중 동남권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하여 상반기 하락(-3.7%)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한국부동산원)

<sup>48</sup> 2025년 3/4분기 중 부산, 울산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각각 15.0%, 17.4%로 상반기 대비 0.5%p, 0.9%p 상승하였다. 경남의 경우 17.5%로 상반기 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전국 평균(13.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한국부동산원)

## 건설업 생산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민간부문의 경우 미분양주택 큰 폭 증가<sup>49</sup>,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우려<sup>50</sup> 등으로 착공이 감소<sup>51</sup> 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감소<sup>52</sup>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폭염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차질 등도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회복기대, 남부내륙철도 건설<sup>53</sup> 등 대규모 SOC 사업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공사비 부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감소<sup>54</sup> 등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up>49</sup> 동남권 주택 미분양물량(국토교통부)은 2025년 6월 12891호에서 11월 14983호로 2,092호 증가하였다.

<sup>50</sup> 동남권의 부동산PF 경공매 대상 중 착공 전 사업장(감정평가액)은 2025년 6월 20조원에서 12월 22조원으로 증가하였다.(부동산PF 정보공개 플랫폼)

<sup>51</sup> 동남권의 36개월 누적 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은 2025년 6월 -8.5%에서 2025년 11월 -12.1%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국토교통부)

<sup>52</sup> 2025년 하반기 중 동남권 지자체의 SOC 예산집행액(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여 상반기(50%)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지방재정365)

<sup>53</sup>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7조원 규모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건설사가 20% 이상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되어 건설업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up>54</sup> 동남권의 36개월 누적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2025년 6월 +0.4%에서 11월 -4.9%로 감소 전환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은 -2.6%에서 -9.1%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공공부문은 14.9%에서 13.6%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국가데이터처)

### (3)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승용차<sup>55</sup>를 중심으로, 준내구재는 의류·잡화<sup>56</sup>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위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의료서비스 수요 등으로 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용역서비스 및 외식 관련 소비도 전기보다 증가하였다.

#### 설비투자 포함

2025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상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은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설비투자<sup>57</sup>를 지속하고 특수선 제조 역량 제고를 위한 설비도 보강하고 있다. 기계장비는 방산 및 원전을 중심으로 기존에 계획된 생산시설 증설<sup>58</sup>이 진행 중이다. 철강

· 비철금속은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sup>59</sup>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sup>60</sup>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투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자동차는 2023년 말 착공한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완료와 첨단공법 공장 착공 지연<sup>61</sup>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sup>55</sup> 2025년 하반기 중 동남권의 자동차판매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상반기(월평균) 대비 26.6% 증가하며 상반기 감소(-22.7%)에서 증가 전환되었다.

<sup>56</sup> 2025년 하반기 중 동남권의 의복 및 신변잡화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상반기(월평균) 대비 각각 7.3%, 7.0% 증가하며 모두 상반기(각각 0.1%, 0.03%)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57</sup> 한화오션은 부유식 도크 1기를 2027년 3월까지, 6,500톤급 해상 크레인을 2027년 11월까지 도입하는 총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sup>58</sup> 현대로템은 주력 생산품목인 K2전차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095억원(2025년 중 709억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며, 두산에너지리티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2,760억원의 투자 외에 2031년까지 8,068억원의 신규 시설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sup>59</sup> 고려아연은 1,241억원 규모의 동순환자원 처리공정 개발투자와 544억원 규모의 K2 자가매립시설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1,345억원 규모의 산소와 질소 생산증대를 위한 산소공장 증설투자(2027년 9월 준공 예상)를 진행 중이다.

<sup>60</sup>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9.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사힌프로젝트)를 진행(공정률: 2024년 10월 40% 초과 → 2025년 5월 69% → 12월 90%)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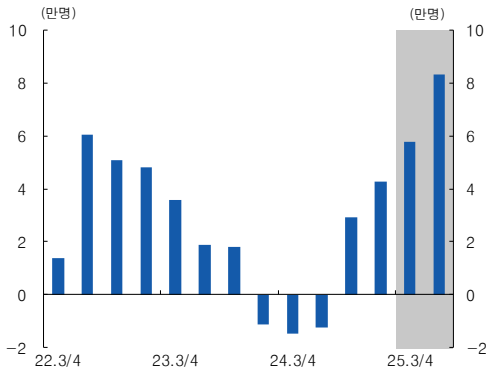
<sup>61</sup> 현대차는 2023년말 약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을 착공하여 2025년 9월말 마무리(공정률: 2024년 7월 44% → 11월 68% → 2025년 6월 95% → 9월 100%)했으며, 1조원 규모의 하이퍼 캐스팅 공장(통합 주조 방식으로 부품 수와 후처리 공정을 줄이는 첨단공법 적용)을 2024년 9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현재 미착공 상태이다.

## (4) 고용

### 취업자수 큰 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7.1만명 증가하여 상반기(+3.6만명)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sup>62</sup>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건설업은 증가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sup>63</sup>의 경우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sup>64</sup>는 자영업자 증가 전환 등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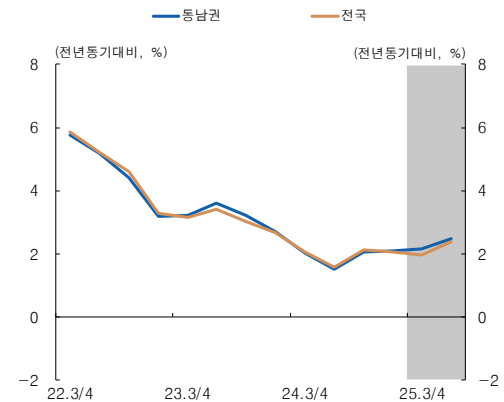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 (5)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2025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여 상반기(2.1%)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1.1%→4.2%) 상승폭이 확대된 데다, 2025년 4/4분기 중 원/달러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으로 석유류<sup>65</sup>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62</sup>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8.6만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2.1만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25년 상반기 +6.8만명 → 하반기 +9.9만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sup>63</sup> 2025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7.5만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5.5만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상용근로자 취업자수 2025년 상반기 +6.5만명 → 하반기 +8.9만명)

<sup>64</sup> 2025년 하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0.5만명 감소하여 상반기(월평균 -1.9만명)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2025년 상반기 -0.7만명 → 하반기 +1.9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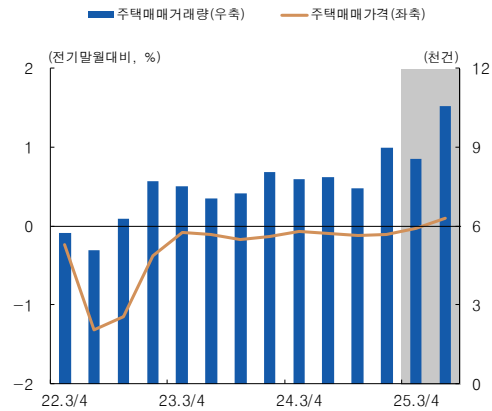
<sup>65</sup> 동남권 석유류 가격은 2025년 3/4분기에 상승 전환 후 4/4분기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석유류 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 %): 부산 2025년 2/4분기 -1.3 → 3/4분기 0.7 → 4/4분기 6.2, 울산 -1.7 → 0.3 → 6.5, 경남 -1.2 → 0.3 → 5.5)

## (6)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환, 거래량 증가폭 확대

2025년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 대비 0.03% 상승하여 상반기 하락(-0.11%)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7~11월 중 전년동기대비 1,414건 늘어나 상반기(+553건)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준공후 미분양주택 수는 감소<sup>66</sup>하였다. 이는 2025년 하반기 들어 전·월세 매물 감소<sup>67</sup>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 확대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강화<sup>68</sup>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과 거래량<sup>2)</sup>



주: 1) (1)내는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4/4분기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 (7) 인 구

###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축소

2025년 하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754.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2만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2.5만명), 경남(-2.1만명), 울산(-0.6만명)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2025년 7~10월 중 출생아수는 11.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6천명(5.9%) 늘어나며 상반기(6.1%)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2025년 7~11월 중 -0.7만명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나 그 폭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다. 지역별 순유출 폭은 부산(-0.4만명), 경남(-0.2만명), 울산(-0.1만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sup>1)</sup>

	2023		2024		2025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만명)
인구수 <sup>2)</sup>	764.8	761.7	759.3	756.3	754.1	(-5.2)
출생아수(천명)	14.7	15.6	15.8	16.5	11.4 <sup>3)</sup>	(0.6)
순이동 <sup>4)</sup>	-1.3	-1.8	-1.0	-1.7	-0.7 <sup>3)</sup>	(0.1)

주: 1) (1)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7~10월 중, 순이동은 7~11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66</sup> 동남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24년 11월(4,376호)부터 2025년 7월(7,071호)까지 지속 증가해왔으나 8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감소(8월 7,058호 → 9월 7,047호 → 10월 6,961호 → 11월 6,793호)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sup>67</sup> 동남권 아파트 전세 매물량(일평균)은 2025년 상반기 11,930건에서 하반기 8,152건으로 31.7% 감소하였으며, 월세 매물량(일평균)도 동기간 11,111건에서 8,225건으로 26.0% 감소하였다.(아실)  
<sup>68</sup> 2025년 상반기 대비 7~11월 중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부산(101.6 → 112.5), 울산(116.3 → 125.4), 경남(99.9 → 112.3)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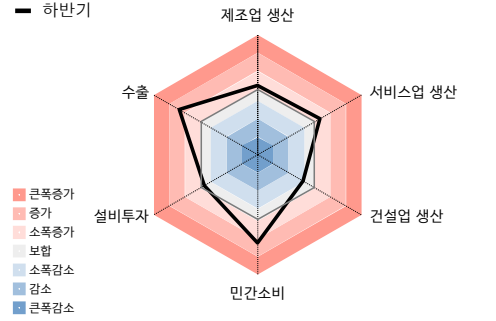
### 3. 충청권

#### (1) 개황

##### 충청권 경기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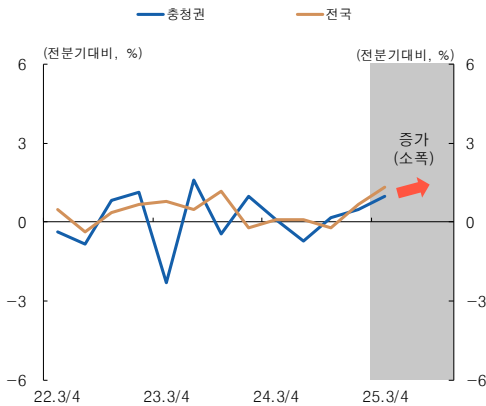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중 충청권 경기는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보였다.

#### 경기 레이다<sup>1)</sup>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충청권 GRDP<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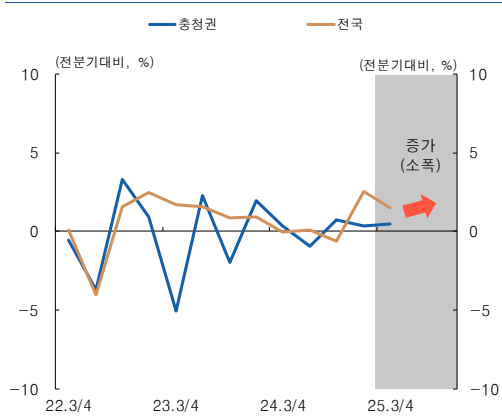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고,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인구수 및 출생아수(7~10월)는 증가하였고, 인구 순유입(7~11월) 규모도 확대되었다.

## (2) 생산

###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AI 서버 수요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석유화학도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은 美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광제조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반도체는 AI 서버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HBM)에 대한 수요가 202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견조한 가운데 일반서버 교체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범용 D램과 플래시 메모리 (NAND)도 호조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sup>69</sup>

디스플레이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OLED 패널 생산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수출도 스마트폰용 OLED 패널과 노트북 등 대형 OLED 패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반도체 등 전방산업 업황 호조로 화학제품 중간재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다만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sup>70</sup>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의 관세 부과 시행 이전 조기선적 효과가 소멸되고,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sup>71</sup>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국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EU의 철강 보호무역 강화<sup>72</sup> 등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중국의 철강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경쟁업체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플러스 전환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sup>69</sup> 2025년 하반기 중 총정권의 HBM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45.9%로 상반기(38.8%)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D램(25.1% → 30.2%) 및 플래시메모리(-17.8% → 48.6%) 수출 증가율도 상당폭 증가하였다.

<sup>70</sup> 2025년 하반기 중 총정권 석유화학제품 수출액(MTI 21 기준, 일평균)은 전기대비 3.7%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sup>71</sup> 현대(現代)자동차 아산공장의 주력 수출 차종인 아이오닉6의 경우 수출물량이 2025년 상반기 중 1,335대(월평균)에서 7~11월 중 1,251대로 6.3% 감소하였다.

<sup>72</sup> 미국 행정부는 철강 관세를 2025년 6월 4일부터 50%로 상향한 데 이어, EU는 10월 7일(현지시간 기준)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을 축소하고 그 외 세율도 50%로 상향조정하는 신규 TRQ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산업통상부)

##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4/4
수출	-0.2	3.6	-7.8	11.6	1.6	18.6
반도체	0.8	17.1	-13.5	22.4	3.6	26.0
디스플레이	7.7	-13.5	-14.0	-1.9	29.3	7.7
석유화학	-7.4	-6.2	5.9	-12.6	-5.1	8.0
자동차및부품	-2.4	-1.8	10.7	14.0	2.4	-1.7
철강제품	-12.6	11.7	-0.1	-3.3	-5.2	43.5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IT기기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불확실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고 노트북 및 태블릿PC도 OLED 패널을 탑재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부가가치 패널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 전환 및 구조조정<sup>73</sup>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내 주요 기업들의 생산 설비 통합<sup>74</sup>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산과 수출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 전기차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와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회복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종 생산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변속기 등 관련 부품산업의 생산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생산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철강은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보호무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정책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대외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 등 전방산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산업내 사업재편 요구<sup>75</sup>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금년 상반기 중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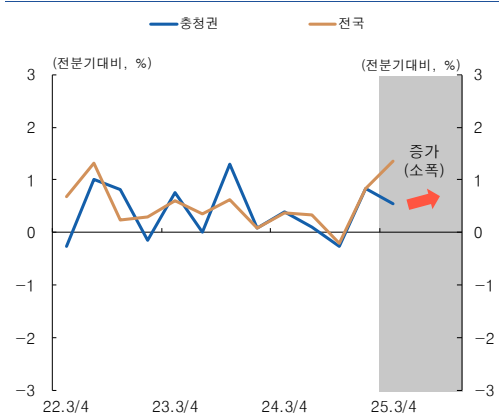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지급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sup>73</sup> 2025년 12월 23일 정부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하에 석유화학의 핵심 소재 및 공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산업통상부)

<sup>74</sup> 롯데케미칼은 충남 서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법인)과 합병하고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11.26)하였으며, 정부는 2026년 1월 중 해당 구조조정에 대해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sup>75</sup> 2025년 11월 4일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 조정, 저탄소고부가 전환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할인쿠폰 배포, 지역 축제 개최 등의 영향<sup>76</sup>으로 충청권 방문객 수<sup>77</sup>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양호한 소비심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창고업은 철도 여객수송 수요가 소폭 늘어난<sup>78</sup> 가운데, 국제선 취항지 확대와 항공편 공급 확대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sup>79</sup> 업황이 개선되었다. 부동산업은 주택거래량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sup>1)2)</sup>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도소매	[9.1]	-0.5	0.3	0.5	0.0	1.9
운수·창고	[7.0]	1.7	0.8	-5.3	3.6	1.9
숙박·음식점	[4.1]	-1.7	1.1	0.7	0.1	-1.1
부동산	[11.4]	-3.4	0.2	-1.7	-2.0	0.5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내는 2024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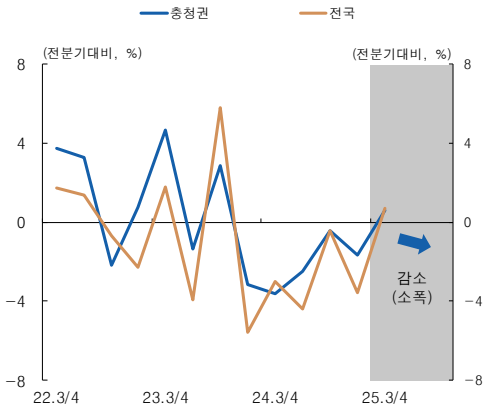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은 지역내 관광 수요 지속 등으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업은 지역내 주요 제조기업의 실적개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운수·창고업은 고속철도 이용 수요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의 항공편 공급 확대에 따라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sup>76</sup> 대전광역시 0시축제(2025.8.8~8.16) 방문객은 약 216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약 4,021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대전광역시)  
<sup>77</sup> 2025년 7~11월 중 충청권 방문자 수(월평균)는 전기대비 12.0% 증가하였다.(한국관광데이터랩)  
<sup>78</sup> 2025년 7~11월 중 충청권 주요 철도역(대전, 서대전, 오송, 청주, 충주)의 승·하차 인원(월평균)은 총 262.7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2.0% 증가하였다.(한국철도공사)  
<sup>79</sup> 2025년 7~11월 중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월평균)는 각각 2,737편, 42.9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각각 24.2%, 24.5% 증가하였다.(한국공항공사)

## 건설업 생산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민간부문은 수도권과 지방 건설경기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공사비도 올라<sup>80</sup> 착공면적<sup>81</sup>이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부문도 건설수주액과 SOC 예산 집행액이 감소<sup>82</sup>하면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지자체 예산 확대<sup>83</sup>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집행이 주로 지방선거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sup>84</sup>,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상반기보다 증가하였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의료기기<sup>85</sup>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준내구재는 의류<sup>86</sup> 등이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식료품<sup>87</sup>, 의약품 등이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sup>88</sup>,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 설비투자 포함

2025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상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자동차 및 부품은 소폭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이 포함 수준이었으나, 철강은 소폭 감소하였다.

<sup>80</sup> 2025년 7~10월 중 평균 건설공사비지수는 131.33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sup>81</sup> 2025년 7~11월 중 충청권 누적 착공면적(12분기 기준, 월평균)은 전기대비 8.2% 감소하였으며 주거용이 10.0%, 비주거용이 7.3% 각각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sup>82</sup> 2025년 7~11월 중 충청권 공공부문 누적 건설수주액(12분기 기준, 월평균)은 전기대비 0.9% 감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중 충청권 SOC 예산집행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0.9%로 상반기 증가(0.6%)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sup>83</sup>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전국기준)은 8.1%이며 충청권은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충청권 광역철도, 국회세종지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카이스트 부설 충북 시바이오 영재학교 등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반도체는 고성능 반도체(HBM) 공정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sup>89</sup>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sup>90</sup>와 신규 생산 라인 구축이 진행되는 한편, 여타 부품업체도 기존 공정의 자동화 및 설비 보수를 병행하면서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디스플레이는 신형 IT기기용 패널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석유화학은 설비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재생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연료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sup>91</sup>가 진행되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철강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산성이 낮은 설비의 가동 중단 또는 매각 등<sup>92</sup>이 이뤄지고 있어 소폭 감소<sup>93</sup>하였다.

<sup>84</sup>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2025년 상반기 중 94에서 하반기 중 111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충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4에서 112로 상승하였다.

<sup>85</sup> 2025년 하반기 중 충청권 의료기기 판매점 카드 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5.1% 증가하며 상반기(10.0%)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86</sup> 2025년 하반기 중 충청권 기성복 판매점 카드 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며 상반기 감소(-4.1%)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sup>87</sup> 2025년 하반기 중 충청권 정육점 카드 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하며 상반기(1.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88</sup> 2025년 하반기 중 충청권 외식업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며 상반기 감소(-1.5%)에서 증가 전환하였으며, 같은 기간 숙박업소 결제액도 증가 전환(-6.9% → 23.3%)하였다.

<sup>89</sup> SK하이닉스는 2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차세대 HBM 및 DDR 메모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청주 M15X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중에는 외부 공정을 마무리하고 장비 반입을 시작하였다.

<sup>90</sup> 현대트랜시스는 하이브리드 구동계(TMED-II) 신사업과 관련하여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설비투자를 추진 중이다.

<sup>91</sup> LG화학 자회사인 엘지에너지바이오리파이닝(ENI(이탈리아)의 합작법인)은 2025년 8월 중 충남 서산에 연간 30만톤의 생산 규모를 갖춘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생산 공장을 착공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HVO는 재생 가능한 식물성 오일에 수소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 나프타, 바이오 디젤 등을 생산하는 데에 활용된다.(LG화학)

<sup>92</sup> 현대제철은 2020년 가동중단한 당진 전기로 열연설비 2기 중 1기를 매각하고 1기는 저탄소 제품용 전기로-고로 복합공정을 재가동할 예정이며 동국제강은 12월 중 인천공장 압연 및 제강 공장의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하나증권)

<sup>93</sup>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미국내 제철소 신설 등 해외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산업내 구조조정 등이 예상되어 앞으로도 지역 내 신규 설비투자를 늘리기에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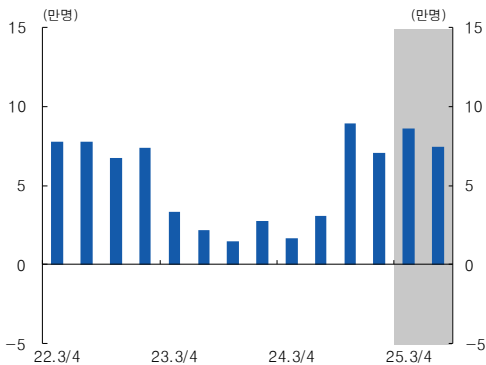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8.0만명 늘어나며 전기(+8.0만명)와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감소 전환하고 건설업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 충북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충남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세종은 감소로 전환하였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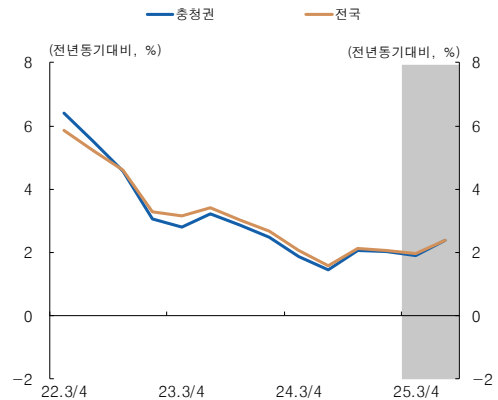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 (5)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오름세 지속

2025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여 상반기(2.0%)와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상품 물가(1.6% → 2.1%)가 농축수산물 중심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 물가(2.4% → 2.2%)는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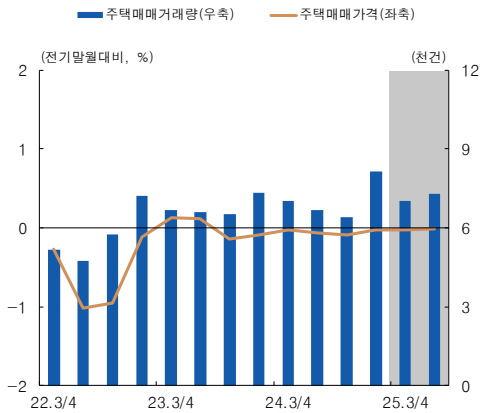
## (6)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거래량 증가폭 축소

2025년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 대비 0.02% 하락하여 상반기(-0.06%)보다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세종(0.20% → 0.09%)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대전(-0.16% → -0.11%)과 충남(-0.09% → -0.04%)은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충북(0.01% → 0.05%)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7~11월 중 전년동기대비 122건 증가하며 상반기(+345건)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세종(+214건 → +2건)의 거래량 증가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과 거래량<sup>2)</sup>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4/4분기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 (7) 인 구

###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입 확대

2025년 하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556.6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4천명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대전(+1.6천명), 세종(+1.3천명), 충북(+5.3천명)의 인구수가 늘어났으며 충남(+0.2천명)도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 7~10월 중 출생아수는 9.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2천명 늘어나며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7~11월 중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0.4천명으로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었다.

####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sup>1)</sup>

	2023		2024		2025		(천명)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 <sup>2)</sup>	5,552	5,555	5,558	5,559	5,566	(8.4)	
출생아수	12.9	13.5	14.1	14.4	9.9 <sup>3)</sup>	(0.2)	
순이동 <sup>4)</sup>	8.8	9.8	9.3	8.7	10.4 <sup>3)</sup>	(1.9)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7~10월 중, 순이동은 7~11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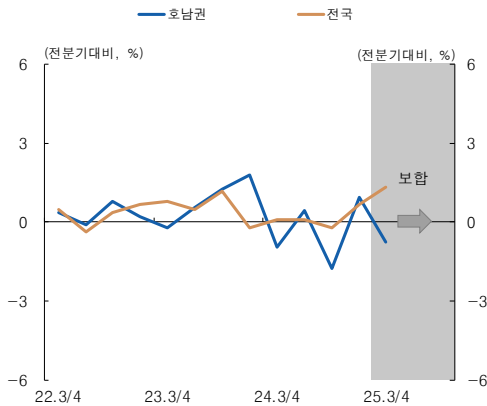
## 4. 호남권

### (1) 개 황

#### 호남권 경기 보합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경기는 2025년 상반기 대비 보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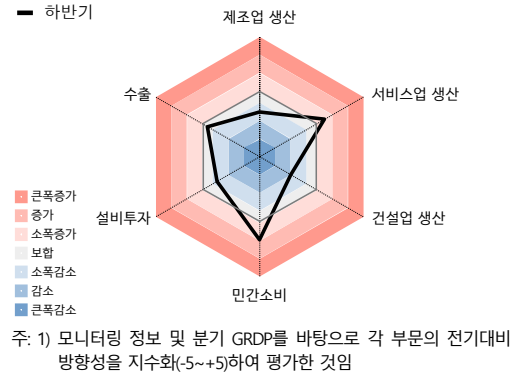
#### 호남권 GRDP<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상반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상승폭이 유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인구수(12월 말)는 감소하였으나, 출생아수(7~10월)는 증가하였고 인구 순유출(7~11월) 폭도 축소되었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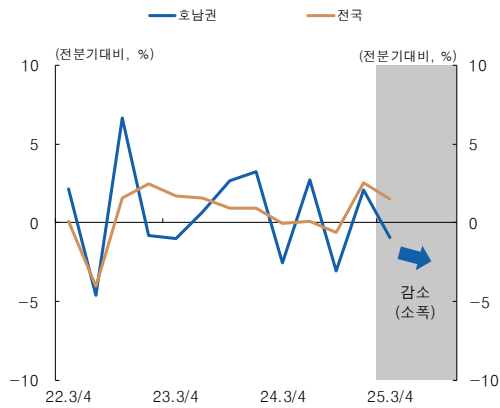


## (2) 생산

###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반도체와 석유정제는 생산이 늘어났으나 자동차, 석유화학 및 철강은 생산이 감소하였고, 조선은 보합수준을 나타내었다.

광제조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저,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반도체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일부 수요가 국내로 이전된 영향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석유정제는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sup>94</sup>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제재<sup>95</sup>로 전 세계 석유제품

공급이 제약된 데 따른 반사효과로 4/4분기 중 생산이 늘어나며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선 수요 조정에 의한 수출의 역기저효과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중국발 공급과잉 및 업황 부진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sup>96</sup>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철강은 하반기 중 일부 업체의 생산설비 수리<sup>97</sup>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음식료품은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주류소비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조선은 3/4분기 중 신규 수주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4/4분기 들어 큰 폭으로 회복<sup>98</sup> 되는 등 견조한 수주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분기 수준의 양호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4/4
수출	-10.9	-5.6	8.5	2.5	-4.0	4.5
자동차	-17.0	2.5	34.3	5.4	-15.1	7.6
석유화학	-27.0	-4.6	11.0	-7.7	-6.4	-2.2
석유정제	-2.2	-11.8	-10.0	10.2	5.5	6.0
철강	-0.8	-4.2	2.9	-3.2	-3.4	-4.7
조선	16.0	-2.2	15.1	-26.5	2.3	52.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sup>94</sup>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2022년 2월에 발발하여 현재(2026년 1월)까지도 진행 중이다.  
<sup>95</sup> 2025년 10월 22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의 대표적 원유 생산 기업인 Rosneft와 Lukoil 및 이들의 자회사를 미국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축소되며 국내 정유업계는 중국 대비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sup>96</sup> 여천NCC는 적자 누적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해 2025년 8월 8일부터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단기간 내 재가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up>97</sup>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공장은 2025년 9월 중, 2열연공장은 10월 중 각각 대수리에 들어갔으며, 1열연공장은 11~12월 중 설비 자동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sup>98</sup> 호남권 조선사의 신규수주(만 CGT): 2025년 상반기 100.8 → 하반기 189.1  
 호남권 조선사의 수주잔량(만 CGT): 2025년 상반기 말 644.0 → 하반기 말 723.1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2026년 중 전기차 보조금 증액<sup>99</sup> 등 전기차 판매 확대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신조선가 상승세<sup>100</sup>가 이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고부가가치 대형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미국의 관세 정책 확정으로 전방산업인 자동차 부문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sup>101</sup>과 K-스틸법<sup>102</sup>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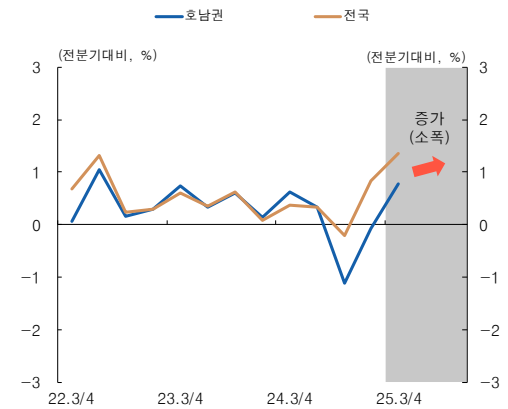
석유정제는 전년 하반기 글로벌 공급 감소에 따른 반사효과가 금년 상반기 중 해소되면서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지속 및 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속되며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정부의 소비진작책 실시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sup>103</sup>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업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터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도소매업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대형소매점의 경우 일부 백화점은 주요 점포의 리뉴얼 공사 완료<sup>104</sup> 등으로 고객

<sup>99</su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 증대와 신규 차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2026년 1월 1일)하였다.

<sup>100</sup> 조선사들이 높은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가격 협상 우위를 확보하면서 신조선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수급구조를 고려할 경우 선가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기간 중 평균 신조선가지수: 2023년 171.1 → 2024년 186.5 → 2025년 186.5 → 2026년 1월 185.6)

<sup>101</sup> 산업통상부는 2025년 11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전남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정책금융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sup>102</sup>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공급 과잉 해소와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철강 시장 구조 개편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up>103</sup> 호남권 소비자심리지수(2025년 상반기 → 하반기): 광주전남 89.5 → 112.2, 전북 91.5 → 110.3

<sup>104</sup>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025년 8월 리뉴얼 오픈 이후 신규 럭셔리 브랜드 유치, 기존 코스메틱 매장 확대, 시그니처 카페 입점 등을 통해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였다. 리뉴얼 효과에 힘입어 고객 수와 객단가가 동반 상승하며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6.2% 증가하였다.(2025.4/4분기 기준)

수가 증가하며 매출이 상승하였고,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따른 일시적 반사이익을 누렸으나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 일부 지점의 폐점 가능성<sup>105</sup> 등으로 전반적인 매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역 축제 개최와 장기휴가효과 등으로 관광객<sup>106</sup>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항공운송<sup>107</sup>의 경우, 여행 수요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상운송<sup>108</sup>은 물동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 매매 거래량은 늘어났으나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sup>1)2)</sup>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보건·사회복지 [12.9]	0.8	1.0	1.1	0.1	-0.6
부동산 [10.3]	-0.4	0.1	-1.8	0.1	0.8
도소매 [9.5]	0.0	-0.4	0.8	-0.9	1.8
운수·창고 [7.4]	2.7	0.4	-0.6	-0.1	1.6
숙박·음식점 [4.4]	-0.9	-1.0	-0.3	-0.3	-1.4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내는 2024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은 경기개선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지역자치단체 소비진작

정책 지원<sup>109</sup>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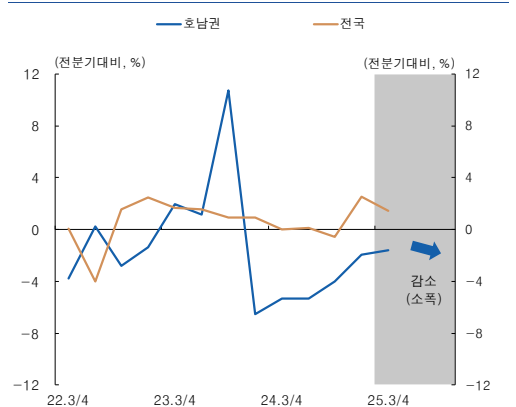
반면 운수·창고업은 미 관세 영향으로 수출 물동량이 감소하여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공급량(입주·매물량) 증가, 주택 매수 심리 약세<sup>110</sup>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생산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터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sup>105</sup>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은 당초 2025년 12월 2일 폐점이 예정되었으나, 홈플러스가 6년간 부실 점포를 최대 41개까지 폐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2025년 12월 29일)함에 따라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sup>106</sup> 2025년 7~11월 중 호남권 월평균 외지인 방문자 수는 2,705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10.1% 증가하였다(한국관광 데이터랩)  
<sup>107</sup>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군산)의 월평균 여객수는 245만 명으로 상반기(월평균 21.7만 명) 대비 12.8% 증가하였다.  
<sup>108</sup> 2025년 7~11월 중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월평균 17.1만 TEU으로 상반기(월평균 16.9만 TEU) 대비 0.9% 증가하였다.  
<sup>109</sup>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2026년 1월 1일)하면서 기본 할인율을 광주는 7% → 10%, 전남은 10% → 12%(연초 한정)로 확대하였다.  
<sup>110</sup>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주택매매수급동향지수(100 미만 시 공급>수요)는 월평균 96.9로 상반기(월평균 94.6)에 이어 100을 하회하였다.

민간부문은 높은 공사비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가운데 분양시장 정체<sup>111</sup>로 수요도 둔화되고 착공면적<sup>112</sup>이 줄어드는 등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SOC 예산집행액이 줄어들면서<sup>113</sup>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주요 SOC 사업<sup>114</sup>이 추진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부문은 지역 건설사 부동산 PF 부실<sup>115</sup>, 건설수주액 감소<sup>116</sup>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진작 정책, 지역축제<sup>117</sup>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준내구재는 계절의류 판매 증가 등으로 의류·잡화 소비<sup>118</sup>가 늘어났다. 비내구재는 음식료품<sup>119</sup>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내구재는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외식<sup>120</sup>, 의료소비<sup>121</sup>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설비투자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유지보수 위주의 투자 기초를 이어갔다.

<sup>111</sup> 2025년 7~11월 중 호남권의 분양실적은 월평균 663호로 상반기(월평균 657호) 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예년 평균(2020~2024년 월평균 1,927호)의 34.4%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sup>112</sup> 2025년 11월말 기준 호남권 12분기 누적 착공면적은 상반기 대비 11.4% 감소하였다.

<sup>113</sup>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예산액(월평균)은 5.2천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9.1% 감소했다.

<sup>114</sup> 2026년 예산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공사비 5,700억원),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개량사업(1,722억원), 새만금 내 국제공항(1,200억원) 등 주요 SOC 사업이 포함되었다.

<sup>115</sup> 영무토건(2025년 5월), 유탑건설(2025년 10월) 등 지역 주요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sup>116</sup> 2025년 11월 중 호남권 민간부문 12분기 누적 건설수주액은 상반기 대비 18.1% 감소하였다.

<sup>117</sup> 2025년 하반기 중 고창청농원 핑크몰리축제(9.19~11.16),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9.26~10.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10.17~10.26), 월출산 국화축제(10.30~11.16) 등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

<sup>118</sup>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의복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여 상반기 감소(-6.1%)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sup>119</sup>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음식료품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하여 상반기(+4.0%)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sup>120</sup>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숙박 및 음식점업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여 상반기 감소(-0.7%)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sup>121</sup> 2025년 하반기 중 호남권 의료기관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하여 상반기(+7.6%)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자동차는 셀토스 후속모델 양산을 위한 투자로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sup>122</sup>

석유화학은 일부 업체의 노후화 설비 교체<sup>123</sup>,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유지보수 위주의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상반기보다 투자규모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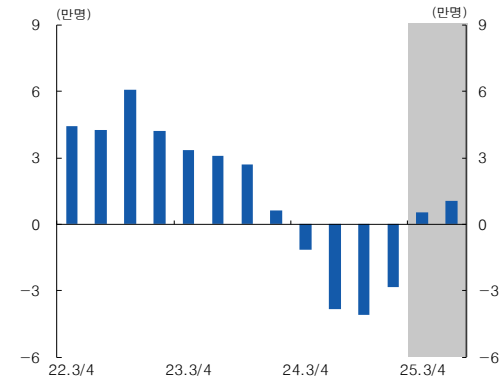
철강 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비용 부담에 대응한 전기로 신설<sup>124</sup>과 노후 설비 교체·성능 복원 투자를 지속하여 상반기 투자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기·가스업은 LNG 관련 인프라 투자<sup>125</sup>가 진행되고 있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 전환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8만 명 증가하여 상반기 감소(-3.5만 명)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sup>126</sup>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업<sup>127</sup>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해 상반기 감소에서 큰 폭 증가로 전환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sup>128</sup>의 경우 상용근로자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sup>129</sup>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5만 명)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전북(-0.1만 명)과 전남(-0.7만 명)은 감소하였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122</sup> 기아 AutoLand 광주에서 생산되는 '2026 기아 디 올 뉴 셀토스'가 2026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sup>123</sup> 삼남석유화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K4공장 정기보수를 진행하였다.

<sup>124</sup>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연 250만 톤 생산 규모의 전기로 공사를 2023년 2월 착공하여 2026년 중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p>125</sup> (주)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지분: (주)한양 60% GS에너지 40%/ 위치: 여수 모도 / 착공: 2024년 9월 / 완공: 2027년 말)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저장탱크, 수송관 등 LNG 유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2028년부터 광양만권 산단에 연간 300만 톤 규모의 LNG를 공급할 계획이다.

<sup>126</sup>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0.1만 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0.6만 명)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sup>127</sup>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5.2만 명 증가하여 상반기 감소(월평균 -0.04만 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였다.(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수: 2025년 상반기 -0.7만 명 → 2025년 하반기 +3.5만 명)

<sup>128</sup> 2025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4.8만 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1.0만 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상용근로자 취업자수: 2025년 상반기 +1.2만 명 → 2025년 하반기 +3.4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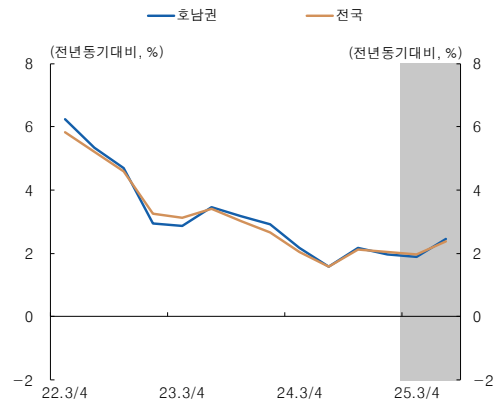
<sup>129</sup> 2025년 하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4.0만 명 감소하여 상반기(월평균 -4.4만 명)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2025년 상반기 -4.0만 명 → 2025년 하반기 -3.3만 명)

## (5)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폭 유지

2025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월평균)은 2.2%를 기록하여 상반기(2.1%) 상승폭이 유지되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sup>130</sup>과 석유류 가격<sup>131</sup> 등이 상반기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서비스물가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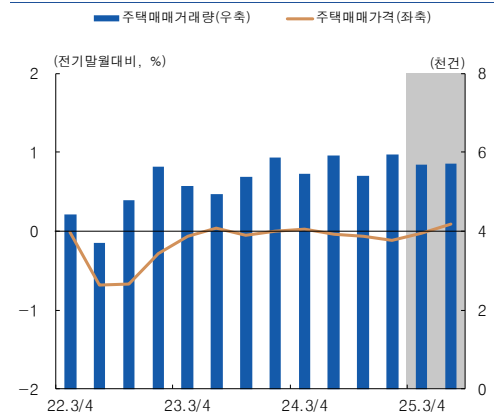
## (6)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 보합, 거래량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0.3%)와 전남(-0.2%)은 하락하였으나, 전북(+0.5%)<sup>132</sup>은 상승하였다. 2025년 7~11월 중 주택매매거래량(월평균 5.7천 건)은 상반기 대비 0.5% 증가하였다.

미분양 주택 수(월평균)는 2025년 7~11월 중 7.7천 호로 상반기(8.1천 호) 대비 6.0%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과 거래량<sup>2)</sup>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년 4/4분기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sup>130</sup> 2025년 하반기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이상기후 등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며 상반기(1.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sup>131</sup> 2025년 하반기 중 석유류는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하며 상반기(1.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sup>132</sup> 2025년 전북 전주시의 입주물량은 405건으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신축·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7) 인 구

###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축소

40

2025년 하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489.6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만 명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1.6만 명), 전남(-1.0만 명), 전북(-1.4만 명) 모두 감소하였다. 2025년 7~10월 중 출생아수는 7.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4천 명 늘어나며 상반기(전년동기대비 +0.6천 명)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2025년 7~11월 중 -4.3천 명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나 그 폭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3.9천 명), 전북(-0.4천 명)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 전남(+0.01천 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sup>1)</sup>

	2023		2024		2025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명) <sup>2)</sup>	497.8	495.4	493.6	491.3	489.6	(-4.0)
출생아수	9.8	10.4	10.6	11.0	7.6 <sup>3)</sup>	(0.4)
순이동 <sup>4)</sup>	-6.8	-11.6	-6.4	-10.3	-4.3 <sup>3)</sup>	(1.1)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7~10월 중, 순이동은 7~11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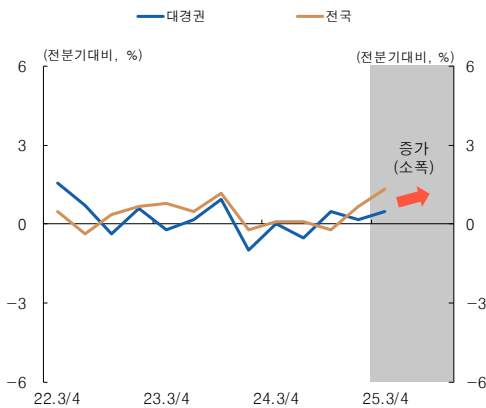
## 5. 대경권

### (1) 개 황

#### 대경권 경기 소폭 개선

2025년 하반기 중 대경권 경기는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고 건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하고 수출은 보합인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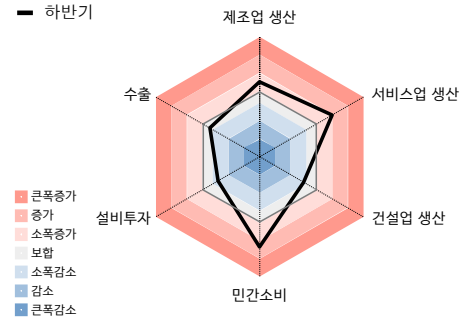
#### 대경권 GRDP<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8만명 증가하여 상반기(+0.3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출생아수(7~10월)가 증가하였으나 인구 순유출(7~11월) 폭이 확대된 가운데 인구수가 감소하였다.

####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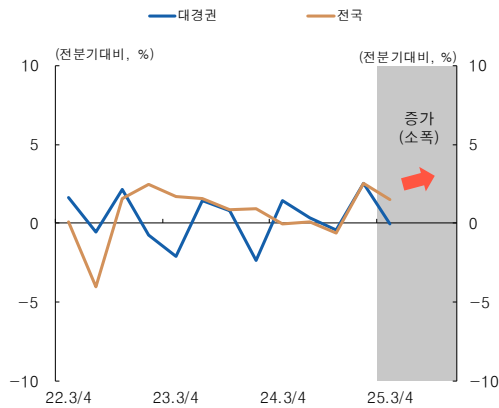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산

###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 생산이 전방산업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 생산은 관세협상 타결과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호조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휴대폰 및 부품 생산은 휴대폰 부품의 수출 부진과 해외 생산 증가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 생산은 비우호적인 대내외여건에 직면하면서 감소하였다.

#### 광제조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저,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디스플레이 생산은 차량용 OLED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 스마트폰 중심의 소형 OLED 수요 확대<sup>133</sup>가 맞물리면서 증가하였다.<sup>134</sup>

자동차부품은 관세협상 타결<sup>135</sup>과 하이브리드 중심의 자동차 수요 호조<sup>136</sup>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휴대폰 및 부품 생산은 신제품인 갤럭시 Z7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생산거점인 중국향 휴대폰 부품 수출 부진<sup>137</sup>과 주요 기업의 해외 생산 증가<sup>138</sup>가 겹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sup>139</sup>

철강은 전방산업인 국내 건설업 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부과<sup>140</sup>와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감소하였다.

#### 수출(일평균)

	2024		2025			
	3/4	4/4	1/4	2/4	3/4	4/4
수출	7.5	-1.2	-8.2	0.4	1.7	6.9
디스플레이	4.6	-22.1	39.8	-9.9	6.1	-11.7
자동차부품	-5.5	-0.6	2.6	5.0	-5.1	1.1
휴대폰및부품	83.4	4.9	-32.9	-2.8	23.7	32.1
철강	10.3	-1.3	-5.5	-10.9	0.3	-5.5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sup>133</sup> 애플에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출하량이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의 영향으로 2025년 24분기 약 1,000만대에서 3/4분기 약 2,000만대로 크게 증가하였고 4/4분기에도 전분기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비리서치, 국내 OLED 전문 시장조사업체)

<sup>134</sup> 대구·경북 지역 OLED 수출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2025.3/4분기) 26.0 → (4/4분기) 65.9

<sup>135</sup>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영향 등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

<sup>136</sup>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전국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여 상반기(3.5%)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수출과 생산은 각각 0.7%, 0.4% 증가하여 상반기(-3.8%, -1.6%)에 비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sup>137</sup> 대경권의 대중 휴대폰 부품 수출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2025.1/4분기) 55.5 → (2/4분기) 18.3 → (3/4분기) -28.8 → (4/4분기) -6.4

<sup>138</sup> 2025년 9월 LG 이노텍은 베트남 하이퐁 V3 신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2~3년 내 카메라 모듈 생산 물량의 70~80%가 베트남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sup>139</sup>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최근 대경권 휴대폰 수출 동향과 주요 요인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sup>140</sup> 미국 정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철강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가전제품 등 다양한 철강 파생제품을 관세부과 대상에 추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 생산은 태블릿·노트북·모니터 등 IT 기기용 OLED<sup>141</sup>와 차량용 OLED<sup>142</sup>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및 부품 생산의 경우 휴대폰용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생성형 AI 탑재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지속, 아이폰17 시리즈 판매 호조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철강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sup>143</sup>에도 불구하고 EU의 탄소국경제도 시행과 국내 전방산업 수요 부진의 지속이 겹치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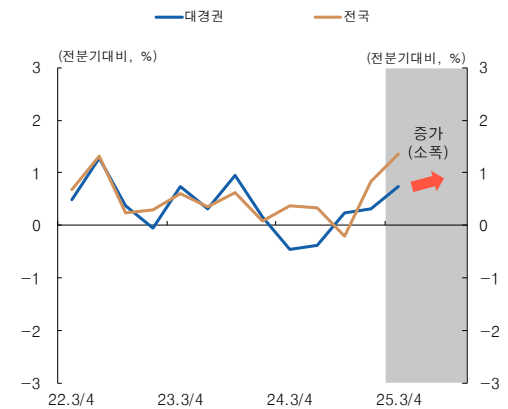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은 양호한 친환경차 수요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구축 등으로 보합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연계 행사 영향으로 숙박객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승용차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은 상업용 건물과 토지 거래가 부진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창고업은 항공 운송의 개선 흐름에도 육상 운송의 회복 지연과 수송 운송의 부진으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GRDP<sup>14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저,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숙박·음식점업은 APEC 정상회의 개최(25.10.27~11.1일)와 연계 문화행사<sup>144</sup> 등으로 숙박객 수가 늘어나며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에 따른 소비심리 호전<sup>145</sup>과 친환경차 중심의 승용차 판매 증가<sup>146</sup>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sup>141</sup> IT 기기용 OLED 출하량 전망(만대, 유비리서치): (2025년) 2,420 → (26년) 3,070 → (27년) 3,760 → (28년) 4,520 → (29년) 5,300

<sup>142</sup> 차량용 OLED 출하량 전망(만대, 유비리서치): (2025년) 450 → (26년) 615 → (27년) 784 → (28년) 956 → (29년) 1,128

<sup>143</sup> 2025년 11월 산업통상부는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하였다.

<sup>144</sup> 보문 멀티미디어쇼(10.17~11.2일)와 대릉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10.24~11.16일) 등 야간체류형 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입이 확대되었다.

<sup>145</sup>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심리지수(월평균 기준): (2025.상반기) 97.8 → (하반기) 106.1

<sup>146</sup> 2025년 하반기 중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 기준)는 10,090대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여 상반기(+4.3%)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국토교통부)

반면 부동산업은 주택매수심리 개선<sup>147</sup>으로 주택 매매가 증가 전환하였으나 상업용 건물과 토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sup>148</sup>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창고업은 소비심리 개선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의 영향으로 항공 운송이 확대<sup>149</sup>되었으나 육상 운송 회복 지연<sup>150</sup>과 수상 운송 부진<sup>151</sup>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sup>1)2)</sup>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부동산	[11.2]	-2.4	-0.7	-2.1	-1.2	0.4
도소매	[10.4]	-2.1	-0.3	-0.1	1.5	2.0
운수·창고	[7.2]	3.0	4.4	-10.2	5.0	3.6
숙박·음식점	[5.2]	-2.2	0.2	-0.4	0.5	1.4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내는 2024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 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Post-APEC 행사 유치<sup>152</sup>, 주요 리조트의 재개장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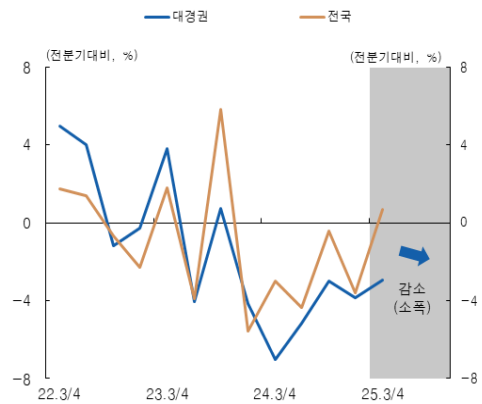
도소매업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업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강화<sup>153</sup>와 분양시장 부진 완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운수·창고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생산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sup>147</sup> 2025년 하반기 중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동향지수(월평균 기준)는 106.6, 108.3을 기록하며 상반기(100.7, 104.6)에 비해 개선되었다.(국토연구원)  
<sup>148</sup> 2025년 7~11월 중 대구·경북 지역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의 거래량(월평균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1%, 9.9% 감소하여 상반기(-21.6%, -14.1%)에 이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한국부동산원)  
<sup>149</sup> 2025년 하반기 중 대구·경북 지역 공항(대구, 포항경주)의 운항 편수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여 상반기(4.6%)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여객수와 운송화물은 각각 1.3%, 1.5% 증가하여 상반기(-1.0%, 0.7%)에 비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한국공항공사)  
<sup>150</sup> 2025년 하반기 중 대구·경북 지역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한 대형화물차(45종) 수는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며 상반기(-5.8%)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sup>151</sup> 2025년 7~11월 중 포항지역 해상화물 수송실적(월평균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6.9% 감소하며 상반기(-18.9%)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해양수산부)  
<sup>152</sup> 2026 PATA(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연차총회(2026.5월)가 경주와 포항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다.  
<sup>153</sup> 2025년 12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동향조사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2021년 10월(120)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공공부문은 SOC 예산 집행액이 축소된 가운데 건축 착공이 소폭 감소<sup>154</sup>하였다. 민간부문은 미분양주택 적체가 일부 해소<sup>155</sup>되었음에도 높은 공사비 부담<sup>156</sup> 등으로 감소<sup>157</sup>하였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모두 건축 착공이 감소하였다.<sup>158</sup>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겠으나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가의 상승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민간부문의 신규 수주액 감소<sup>159</sup>가 이어지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OC 예산 확대<sup>160</sup> 등으로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3)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상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비내구재는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는 의류를 중심으로, 내구재는 가전 판매 감소에도 승용차 판매 확대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sup>161</sup>하였다.

#### 설비투자 소폭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방산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반도체 소재·부품과 섬유에서 소폭 줄어들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방산<sup>162</sup>은 글로벌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확충이 이어지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sup>154</sup> 2025년 하반기 중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지출액은 상반기 대비 17.7% 감소한 가운데 7~11월 중 공공부문의 누적(12개 분기) 건축 착공면적(월평균 기준)은 상반기 대비 0.9% 감소하였다.

<sup>155</sup> 2025년 11월말 기준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주택수는 각각 7,218호, 5,297호로 6월말(8,995호, 6,482호)에 비해 각각 1,777호, 1,185호 감소하였다.

<sup>156</sup> 2025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sup>157</sup> 2025년 7~11월 중 민간부문의 누적(12개 분기) 건축 착공면적(월평균 기준)은 상반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

<sup>158</sup> 2025년 7~11월 중 누적(12개 분기) 건축 착공면적(월평균 기준)은 상반기 대비 22.8% 감소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과 공업용이 각각 38.8%, 13.5%, 9.6% 줄었다.

<sup>159</sup> 2025년 7~11월 중 민간부문의 누적(12개 분기) 건설수주액(월평균 기준)은 상반기 대비 14.8% 감소하였다.

<sup>160</sup> 포항-영덕 고속도로(1,212억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2,600억원), 문경-김천 철도(210억원) 등이 신규 예산 사업에 반영된 가운데 정부 SOC 예산이 2025년 25.4조원(본예산)에서 2026년 27.7조원(확정예산)으로 7.9% 증가하였다.

<sup>161</sup> 2025년 하반기 중 대경권 의료기관과 보건위생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7%, 6.1% 증가하여 상반기(10.9%, 2.8%)에 이어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sup>162</sup> LG넥스웬은 2025년 하반기부터 구미 사업장에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3,74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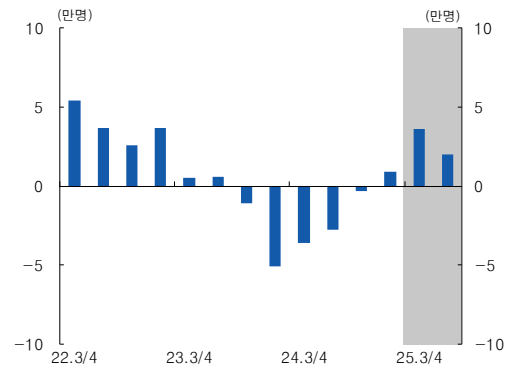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은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소재·부품에서는 지역 내 사업체의 대규모 투자가 종료<sup>163</sup>되고 유지보수 위주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섬유는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8만명 증가하여 상반기(+0.3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증가 전환되었다. 반면 제조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수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의 증가 전환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폭 확대로 증가 전환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증가 전환하고 경북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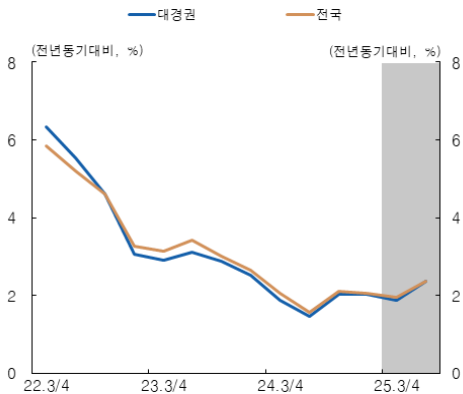
<sup>163</sup> 원익 QnC는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쿼츠 등 반도체 공정용 소재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구미국가산업 5단지 내 설비투자를 진행하였다.

## (5)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2025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하여 상반기(2.0%)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1.4% → 4.3%)과 식유류(2.3% → 3.0%)의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것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 전환한 데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다.<sup>164</sup>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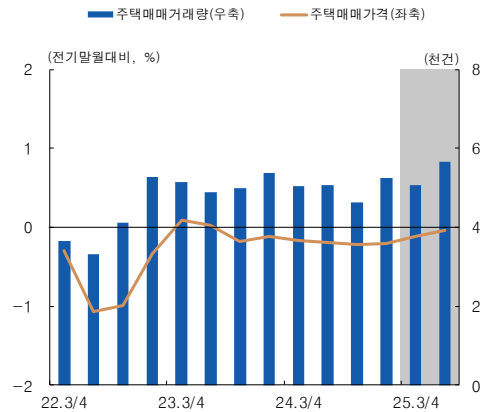
## (6)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거래량 증가 전환

2025년 하반기 중 대구경북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0.07% 하락하여 상반기(-0.21%)보다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0.34% → -0.16%)가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경북(-0.11% → 0.00%)은 보험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주택 적체가 일부 해소되었다.

2025년 7~11월 중 매매거래량(월평균)은 전년 동기대비 184건 늘어나며 상반기(-247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대구와 경북의 주택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두 지역 모두 매매거래가 증가 전환하였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과 거래량<sup>2)</sup>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4분기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sup>164</sup> 품목별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변화(2025.상반기 → 하반기, %): 농산물(-1.7 → 2.3), 축산물(5.2 → 6.1), 수산물(5.1 → 7.2)

## (7) 인 구

###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폭 확대

48

2025년 하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486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만명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1.1만명, 2.5만명 감소하였다.

2025년 7~10월 중 출생아수는 7.2천명으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0.2천명 늘어났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2025년 7~11월 중 4.9천명 순유출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순유출 폭이 전년동기(4.2천명)보다 확대되었다.

####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sup>1)</sup>

	(천명)				
	2023		2024		2025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인구수(만명) <sup>2)</sup>	493	491	490	488	486 (-3.5)
출생아수	9.3	10.1	10.4	10.7	7.2 <sup>3)</sup> (0.2)
순이동 <sup>4)</sup>	-4.5	-7.2	-5.5	-7.0	-4.9 <sup>3)</sup> (-0.7)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7~10월 중, 순이동은 7~11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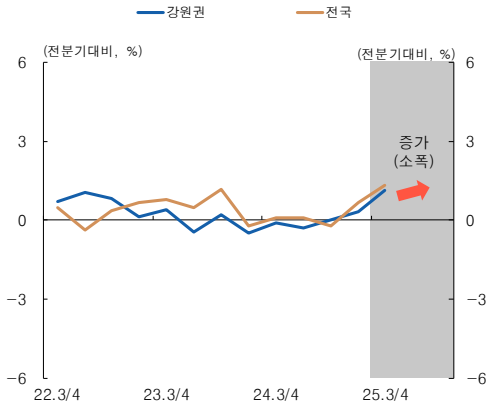
## 6. 강원권

### (1) 개황

#### 강원권 경기 소폭 개선

2025년 하반기 중 강원권 경기는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생산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은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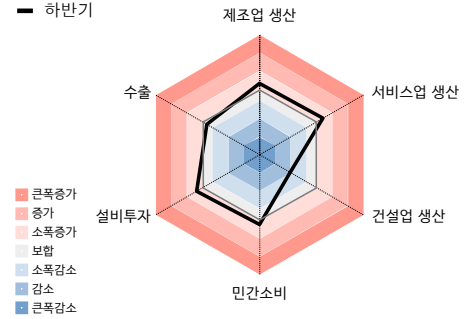
#### 강원권 GRDP<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상반기 대비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주택 매매가격은 약보합을 지속하였다. 출생아수(7~10월)는 증가하고 인구이동은 순유입(7~11월)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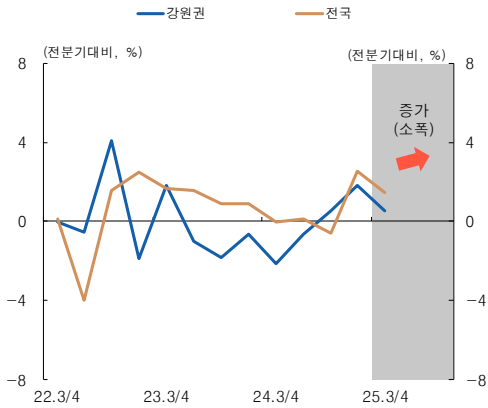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산

###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료와 의류기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의약품 및 전선이 생산능력 확충과 공정 개선 등으로 제조업 생산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제조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의약품은 공장 증설과 국제 제조 기준 획득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sup>165</sup> 등으로 점진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시멘트는 상반기 건설업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건설업 여건이 다소 개선<sup>166</sup> 되면서 상반기 대비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신규공장 준공<sup>167</sup>으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음식료품은 주류 감소와 면류 증가가 서로 엇갈리며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류는 수요부진으로 일부 제품 생산이 중단<sup>168</sup>되는 등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면류는 K-푸드 글로벌 인기로 힘입어 생산이 증가하였다.

의료기기는 상반기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에는 수출이 둔화(-12.4%)되면서, 생산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출(일평균)

	2024		2025		(전분기대비, %)	
	3/4	4/4	1/4	2/4	3/4	4/4
수출	-12.2	2.0	25.7	-7.7	-4.9	-9.8
의료기기	-11.4	8.8	12.6	3.4	-16.9	0.0
주류	-1.4	1.7	-8.1	-1.0	6.2	-15.5
비금속광물	17.6	11.5	-2.0	29.0	1.7	-6.1
의약품	36.3	-4.1	1.6	7.6	-4.2	-0.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기존 계약 물량 이행, 생산능력 확충,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sup>165</sup> 유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2/4분기 제2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연간 백신 생산능력이 2.6배 확대되었다. 또한, 동 기업은 유비콜-에스 원액 제조에 대한 WHO의 사전적격평가 승인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및 완제품 제조소 추가 승인 등으로 유니세프에서 요청하는 콜레라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sup>166</sup> 강원권 건설업 GRDP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계절조정 계열)은 2025년 1/4분기 -4.5%, 2/4분기 -2.6%, 3/4분기 -1.3%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다.  
<sup>167</sup> LS전선은 동해시 해저케이블 5공장을 2025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럽과 일본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하였다.  
<sup>168</sup> 하이트 진로는 2025년 11월부터 1.6L, 1L 하이트 피쳐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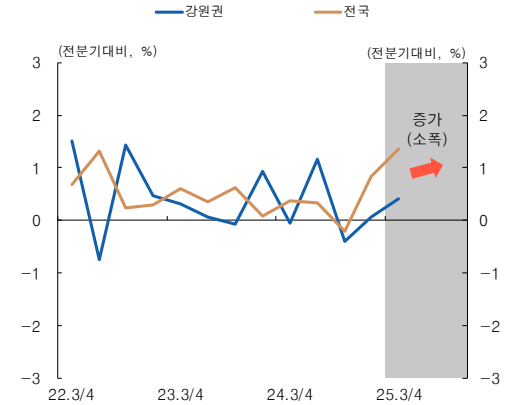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의료기기는 2025년에 계약한<sup>169</sup> 물량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은 하반기 생산능력확충과 수출 판로 개척<sup>170</sup> 등으로 생산 확대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료품은 면류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와 도·기업 협력<sup>171</sup>을 통한 제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에 힘입어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멘트는 올해 전국 건설투자가 반등<sup>172</sup>할 전망이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자 수 증가, 소비심리 개선<sup>173</sup>에 힘입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보합세를 나타내었고 부동산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GRDP<sup>17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숙박·음식점업은 방문자 수 증가에 힘입어 다소 증가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방문자 수가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5% 늘었으나 4/4분기에는 11.5%로 큰 폭 증가하였다. 이에 숙박·음식점업의 카드 매출<sup>174</sup>도 늘어났다. 도소매업은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책의 영향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골프장 이용객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며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up>169</sup> 2025년 9월 18~19일에 원주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강원의의료기기전시회(GMES) 2025'에서는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3,614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1월 27~30일에 개최된 '아랍헬스 2025'에서는 국내 주요 의료기기 기업인 삼성메디슨을 비롯한 24개 국내 기업들이 25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sup>170</sup> 대화제약은 2025년 하반기 중국 수출 판로를 개척한 데 이어, 수출 확대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up>171</sup> 삼양식품은 2025년 11월 신제품 '삼양1963'을 출시하였고, 도와 제품 개발 협력(2025.12월) 및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협력(2025.4월)을 맺었다.

<sup>172</sup> 전국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4년 -3.3%, 2025년 -8.7%이었으나, 2026년 2.6%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조사국 전망, 2025.11.27일)

<sup>173</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8.8(월평균)로 장기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상반기(97.5) 대비 11.3p 상승하였다.

<sup>174</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평균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여 상반기 감소(-1.3%)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부동산업은 하반기 중 입주예정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sup>175</sup> 주택거래가 감소<sup>176</sup>하며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sup>1)2)</sup>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도소매	[7.0]	0.1	0.0	-0.2	-0.8	0.8
숙박·음식점	[6.4]	1.0	3.6	-3.9	-0.5	-0.8
부동산	[8.0]	-0.7	1.6	4.5	-5.4	-1.6
공공행정	[31.9]	0.1	0.5	0.3	1.4	0.2
문화 및 기타	[6.9]	-4.1	-2.5	0.0	-2.9	-1.2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4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견조한 소비심리, 확장적 재정 운용,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이 맞물리며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국내여행 선호 증가가 지자체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년차를 맞이하는 ‘강원방문의 해’ 사업과 동해선 KTX 증편 운행 등은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역시 소비심리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원지역 서비스업 생산의 31.9%(2024년 기준, 명목)를 차지하는 공공행정 및 국방은 2026년도 예산이 8.3조원(2025년대비 +7.3%)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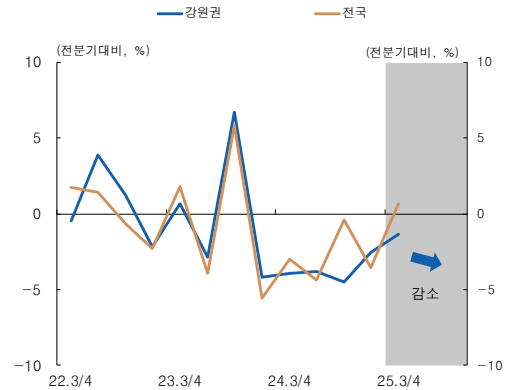
로 편성되고 국비 또한 10.2조원(+5.1%)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 수요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규제를 받는 수도권 수요가 유입될 경우에는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수요도 2025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생산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민간부문이 크게 부진하였고, 공공부문 역시 위축되었다. 민간부문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미분양주택 적체 지속 등으로 발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SOC부문 예산집행실적이 소폭

<sup>175</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6,031세대로 상반기(3,649세대) 대비 2,382세대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sup>176</sup> 2025년 7~11월 중 강원지역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감소<sup>177</sup>하였고, 7~11월 중 공공부문 발주 건설 수주액 또한 전년동기대비 34.9%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건설업은 발주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금난 심화 등이 부진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건설업 생산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민간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제천·영월 고속도로 착공과 함께 동서고속철도, 제2경춘국도 등에 대한 SOC분야 국비 예산이 증액<sup>178</sup>되었고,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도시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물량이 증가<sup>179</sup>하며 신규 착공이 위축되고, 누적된 건설수주 및 착공면적의 축소로 민간부문이 부진하여 건설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3)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가전 판매 부진<sup>180</sup>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되었지만, 준내구재는 의복과 잡화를 중심으로, 비내구재는 음식료품과 연료판매를 중심으로 증가<sup>181</sup>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의료서비스 지출<sup>182</sup>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상반기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기, 음식료품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였다. 의료기기는 삼성메디슨이 9월부터 강원 홍천에서 공장 증설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가 증가하였다. 음식료품은 제조 공정 라인 개선<sup>183</sup> 및 공장 증설

<sup>177</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SOC 예산 집행액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sup>178</sup>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의 SOC분야 국비 예산은 2조 3,628억원으로, 2025년 대비 6.8% 증가하였다.(강원특별자치도)

<sup>179</sup>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즉시 입주 가능함에도 해소되지 않는 악성 재고로서 더 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2025년 11월 강원지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1,261호로, 6월(855호) 대비 47.5%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sup>180</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평균 가전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하여 상반기(-1.0%)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sup>181</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평균 의복·직물·잡화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여 상반기 감소(-3.2%)에서 증가로 전환하였고, 강원지역 평균 음식료품 및 연료판매 카드사용액은 각각 7.8%, 4.5% 증가하여 상반기(3.0%, 2.1%)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182</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평균 의료기관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하여 상반기(34.0%)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183</sup> 국순당은 제조 공정 라인 수정 작업을 2025년 하반기 중에 완료하였다.

<sup>184</sup>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상반기 대비 투자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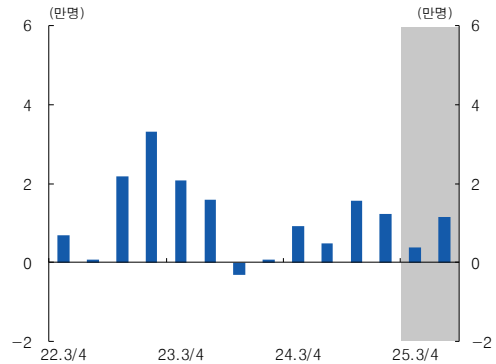
한편, 전선의 경우는 동해 해저5동 증설이 7월에 완료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투자가 감소하였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8만명 증가하여 상반기(1.4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분기별로는 3/4분기 중 0.4만명 증가하였고 4/4분기 중 1.1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sup>185</sup>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커졌지만, 제조업과 건설업<sup>186</sup>의 감소폭은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sup>187</sup>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임금근로자<sup>188</sup>의 경우 임시근로자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감소폭이 소폭 줄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184</sup> 삼양식품은 원주 공장 증설을 위해 약 780억원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202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sup>185</sup> 2025년 하반기 중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0.9만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0.7만명)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sup>186</sup>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0.7만명 감소하여 상반기(월평균 -0.3만명)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건설업도 0.9만명 감소하여 상반기(월평균 -0.4만명)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sup>187</sup> 2025년 하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1만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2.0만명)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상반기 +1.8만명 → 하반기 +0.2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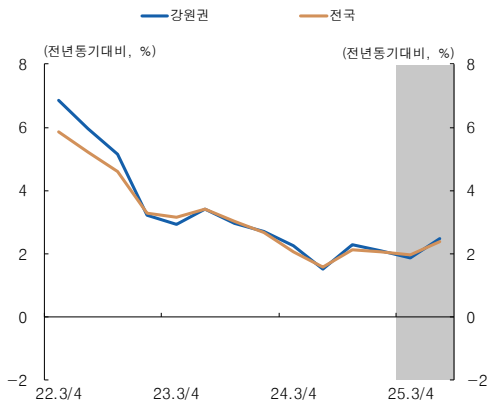
<sup>188</sup> 2025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0.3만명 감소하여 상반기(월평균 -0.6만명)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임시근로자 취업자수 상반기 +0.8만명 → 하반기 +1.8만명)

## (5)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폭 유지

2025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 동기대비 2.2% 상승하여 상반기(2.2%) 상승폭을 유지하였다. 상품 물가<sup>189</sup>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물가<sup>190</sup>가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이를 상쇄하였다. 분기별로는 3/4분기(1.9%)에 물가상승률이 2/4분기(2.1%)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4/4분기(2.5%)에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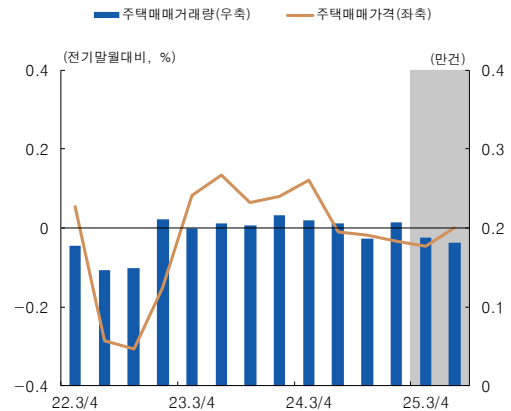
주: 1)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 (6)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 약보합 지속, 거래량 감소 지속

2025년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은 상반기와 비슷하게 약보합을 나타냈다.(상반기 -0.02% → 하반기 -0.01%, 전반기 말월 대비 월평균 기준)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7~1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246건 줄어들며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이 크게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대출규제의 간접적 영향으로 주택매수 심리가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과 거래량<sup>2)</sup>



주: 1) 전기말월 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4/4분기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sup>189</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상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며 상반기(1.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농축수산물 상반기 1.5% → 2.6%)

<sup>190</sup>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며 상반기(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공공서비스 상반기 1.9% → 0.7%)

## (7) 인 구

###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입 전환

56

2025년 하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150.9만명으로 2024년 하반기 대비 0.9만명(-0.6%)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0.15만명), 동해시(-0.13만명), 속초시(-0.13만명) 순으로 감소한 반면, 정선군(+0.14만명), 원주시(+0.10만명)는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0.45만명)과 여성(-0.48만명)이 비슷하게 줄어 들었다.

2025년 7~10월 중 출생아수는 2.3천명으로 전년동기(2.2천명)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7~11월 중 1.4천명으로 순유입되어, 전년동기(-0.7천명)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정선군(+1.3천명), 원주시(+0.9천명) 등을 중심으로 순유입되었고, 삼척시(-0.4천명), 태백시(-0.3천명) 등의 지역에서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sup>1)</sup>

	2023		2024		2025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명) <sup>2)</sup>	152.8	152.3	151.8	151.1	150.9	(-0.9)
출생아수	3.1	3.3	3.2	3.3	2.3 <sup>3)</sup>	(0.1)
순이동 <sup>4)</sup>	-0.8	-1.6	-0.9	-3.1	1.4 <sup>3)</sup>	(2.1)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7~10월 중, 순이동은 7~11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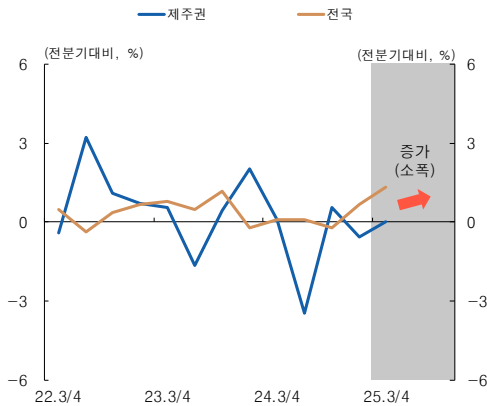
## 7. 제주권

### (1) 개황

#### 제주권 경기 소폭 개선

2025년 하반기 중 제주권 경기는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이 상반기보다 증가하고 서비스업과 농축수산업 생산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생산은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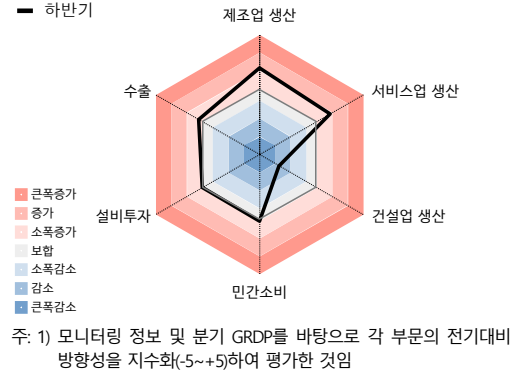
#### 제주권 GRDP<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흐름을 지속하였다. 인구 수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순유출(7~11월) 폭도 확대되었으나, 출생아수(7~10월)는 상반기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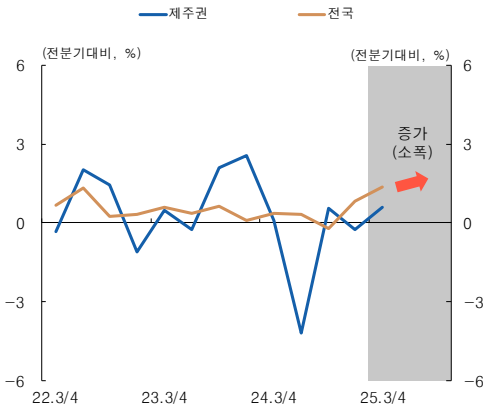


## (2) 생산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 레저업, 카지노 등 관광서비스업은 관광객 증가<sup>191</sup>에 힘입어 증가하였고, 도소매업도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중국내 출시 게임의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GRDP<sup>19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저,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숙박업은 내국인 관광객 회복세 등으로 증가하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취소 또는 연기되었던 기업 인센티브 등 단체여행이 회복되면서 이와 관련한 중소형 호텔 또는 대규모 행사 시설을 갖춘 호텔 등의 업황이 개선되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 외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제선 증편이 공항 인근 도심지역 대형 호텔 등의 업황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구도심 지역 소규모 업소, 농어촌 지역 민박, 펜션 등 영세업체의 업황 부진은 지속되었다.

레저업은 골프장이 3/4분기 중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sup>192</sup>되었다가 4/4분기 들어 기상여건 개선, 도외 이용객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다. 카지노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주요 업체의 방문객당 지출액(드롭액)이 확대되는 등 매출구조도 개선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93</sup>

도소매업은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배송 이용 증가, 내구재 소비 감소에 따른 객단가 하락 등으로 부진 흐름을 이어갔으나, 면세점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출이 개선되었고<sup>194</sup>, 소상공인 위주의 전문소매업도 관광경기 개선 영향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sup>195</sup>

<sup>191</sup> 제주방문 관광객 수(전년동기대비)는 2025년 상반기 7.7%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7.7%로 증가전환하였다. 이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여행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동남아 등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둔화, 제주 기점 국내선 증편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4/4분기부터 증가한 데 기인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도 중국 외 아시아권 국제선 증편, 크루즈 운항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흐름이 이어졌다.

<sup>192</sup> 제주지역 골프장은 2025년 3/4분기 이상 고온 및 적은 강수량에 따른 잔디 손상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 수 감소세(전년동기 대비, 2025년 2/4분기 -3.6% → 3/4분기 -3.4%)가 지속되었다. 이후 4/4분기에는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 확대, 온화한 날씨 지속 등의 영향으로 도외 이용객이 늘어 개선 흐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up>193</sup> 제주 카지노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드림타워 카지노는 2025년 하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470.1억으로 상반기(324.3억) 대비 44.9% 증가하였다. 이는 카지노 방문객 증가(상반기 4.3만명 → 하반기 5.5만명)와 더불어 고객 1인당 지출액(드롭액)이 2025년 상반기 4.4백만원에서 하반기 4.9백만원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sup>194</sup> 2025년 7~11월 중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6% 늘어 상반기(-27.1%)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다(내국인 매출액 2025년 상반기 -27.4% → 7~11월 -8.9%, 외국인 매출액 -25.0% → 11.8%). 외국인 매출의 큰 폭 개선은 상반기 기저 효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객단가가 소폭 하락(-1.8%)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수가 증가(+14.1%)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sup>195</sup> 2025년 3/4분기 중 제주지역 전문소매점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8% 줄어 상반기(+4.8%)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여행업이 단체 관광객 감소, MICE 등 국제 행사 감소 영향으로 부진하였으나, 임대업(렌트카) 업황이 내국인 관광객 회복 및 렌트카 가동률 상승<sup>196</sup>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운수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항공 운수가 항공 안전관리 강화 등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지역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국제여객 탑승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버스도 수학여행<sup>197</sup> 및 단체 관광객의 전세버스 이용이 부진하면서 저조한 가동률을 지속<sup>198</sup>하였다.

정보통신업은 지역 게임사가 중국내 출시한 모바일 게임의 하반기 진행된 추가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매출 개선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소폭 감소<sup>199</sup>하였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sup>1)2)</sup>

		(전분기대비, %)				
		2024		2025		
		3/4	4/4	1/4	2/4	3/4
도소매	[9.5]	-2.2	-2.7	3.3	-0.4	0.5
숙박·음식점	[8.5]	-0.4	-4.6	-4.2	5.3	5.6
사업서비스	[8.1]	3.0	-4.7	-3.4	-2.7	-3.0
문화·기타	[6.9]	4.5	-6.6	-1.5	2.7	5.0
정보통신	[4.6]	-10.0	-21.1	-3.1	1.3	-5.0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4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관광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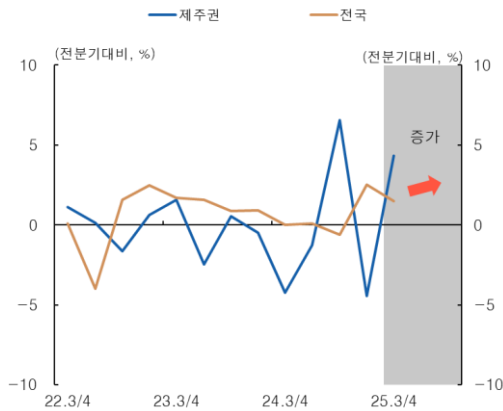
내국인 관광객은 국내 민간소비 증가 흐름<sup>200</sup>, 항공 접근성 개선<sup>201</sup>,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노력<sup>202</sup> 등으로 최근의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주요 방문국가 다변화<sup>203</sup>, 제주기점 국제선 탑승률 개선<sup>204</sup>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중·일 관계 악화 장기화에 따른 반사 효과는 제주 방문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의 전국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up>196</sup> 2025년 7~10월 중 렌트카 가동률은 75.7%로 전년동기(73.3%)대비 24%p 상승해 상반기 하락세(-5.7%p)에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sup>197</sup> 2025년 7~11월 중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객은 11.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하였다.  
<sup>198</sup> 2025년 7~11월 중 전세버스 가동률은 25.2%로 전년동기(26.8%)대비 1.6%p 하락해 상반기 하락 흐름(-1.0%p)을 유지하였다.  
<sup>199</sup> 네오플의 모회사인 NEXON(일본 상장)의 중국 매출액은 연초 대규모 업데이트 영향이 반감되며 2025년 1/4분기 376억엔에서 2/4분기 269억엔으로 감소하였으나 추가 업데이트 등 노력으로 3/4분기 284억엔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다만 상반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up>200</sup>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5년 상반기 0.7 → 하반기 1.9 → 2026년 상반기 2.2  
<sup>201</sup> 2026년 1/4분기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기 운항 예정 편수는 월평균 6,140편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공항공사)  
<sup>202</sup> 제주도는 최근의 관광객 회복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26년 관광 관련 예산을 체류형 콘텐츠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또한 2025년에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했던 단체관광객 인센티브(15인 이상, 3만원 지역화폐 지원), 제주관광 디지털 커뮤니티 서비스(나우다)도 2026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sup>203</sup> 2025년 7~11월 주요 국가별 관광객 수 증가율(% YoY): 중국 22.3, 일본 11.0, 대만 53.2, 싱가포르 42.6, 그 외 13.0  
<sup>204</sup> 제주공항 국제선 탑승률 증감(전년동기대비, %p): 2024년 하반기 0.5 → 2025년 상반기 2.7 → 하반기 8.0

## 제조업 생산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전세계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생산 물량 증대 및 대중국 수출 증가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 제품은 하반기 중 제주 도심 지역 대단지 아파트 공사 진척에 따른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다. 식음료는 관광 경기 회복 등 영향으로 가공식품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류 소비량 감소 등에 따른 주요 음료 기업 판매 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광제조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음료 제품은 도내 소비심리 회복, 관광경기 회복 흐름 등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비금속 광물은 도내 주요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납품 완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출(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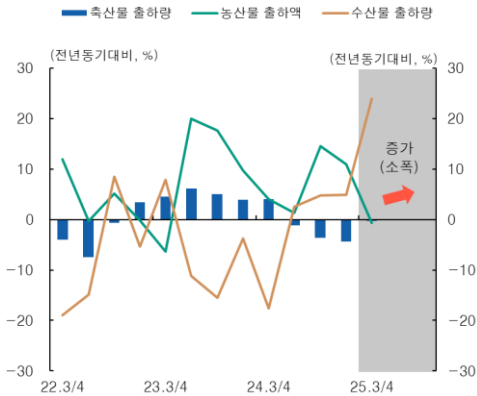
	2024		2025		(전분기대비, %)	
	3/4	4/4	1/4	2/4	3/4	4/4
수출	-5.5	36.3	29.9	-17.6	66.6	8.0
전자전기제품	-9.6	-2.5	41.8	-1.9	115.8	-9.0
농림수산	5.0	80.6	-16.7	-31.3	13.1	50.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농축수산 생산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농축수산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은 노지 감귤이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격이 호조를 보이며<sup>205</sup> 출하액이 증가하였다. 축산물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산물은 양식 넙치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근해 어업(갈치, 참조기 등)도 양호한 기상상황 및 조업여건을 바탕으로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sup>205</sup> 노지감귤 평균 출하가격(5kg당)은 2024년 12,000원에서 2025년 12월 14,700원으로 22.5%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5년 일조량 증가에 따른 당도 상승과 딸기·사과 등 경쟁 과일 대비 소비자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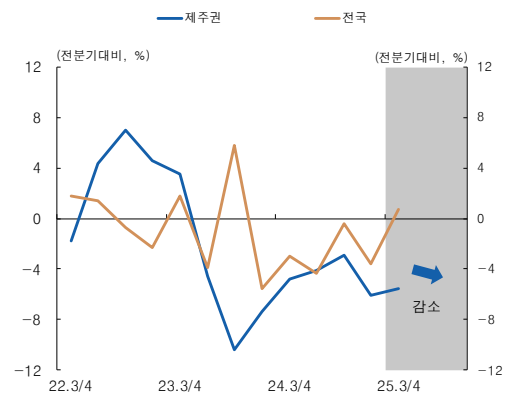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출하<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품질평가원, 국가데이터처

모니터링 결과 향후 농축수산물 생산은 2025년 하반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생산은 감귤류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겠으나, 월동채소(당근, 양배추, 무 등)는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sup>206</sup> 보합세가 예상된다. 다만 감귤류의 경우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이 시행되고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시기와도 겹쳐 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 수산물물은 수온 변화로 방어 등 겨울철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양식 광어는 완도지역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등이 광어 수출 출하량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업 생산 감소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감소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SOC 지출 축소<sup>207</sup>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sup>208</sup>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누증<sup>209</sup> 등 주택 시장 부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sup>210</sup> 되면서 감소하였다.<sup>211</sup>

건설업 GRDP<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25년 하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상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sup>206</sup> 2025년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1.2만ha로 전년대비 13.7% 증가, 생산량은 58만t으로 전년대비 3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up>207</sup> 2025년 하반기 중 제주지역 SOC 관련(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예산지출액은 약 3,535억원으로 상반기(5,656억원) 대비 37.5% 감소하였고, 전년동기(3,935억원)대비로도 10.2% 감소하였다.

<sup>208</sup> 2025년 7~11월 중 제주지역 공공부문 누적건설수주액(36개월)은 상반기(월평균)에 비해 6.6% 감소하였다.

<sup>209</sup> 미분양주택(호): 25.7월 2,486 → 8월 2,621 → 9월 2,576 → 10월 2,542 → 11월 2,520

준공 후 미분양(호): 25.7월 1,611 → 8월 1,608 → 9월 1,635 → 10월 1,965 → 11월 1,965

<sup>210</sup> 제주(전국) 집합 상가 공실률(%): 2024년 4/4분기 16.4(10.1) → 2025년 1/4분기 17.6(10.3) → 2/4분기 16.5(10.5) → 3/4분기 17.5(10.5)

<sup>211</sup> 2025년 7~11월 중 제주지역 민간부문 누적건설수주액(36개월)은 상반기(월평균)에 비해 26.0% 감소하였다. 2025년 7~11월 누적착공면적(36개월)도 상반기(월평균)에 비해 주거용을 중심으로 13.5% 감소하였다.(주거용 -18.1%, 비주거용 -9.4%)

부문의 경우 제주도의 건설경기 회복 정책<sup>212</sup> 등으로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주택 및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신규수주<sup>213</sup>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개선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나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3/4분기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소비 촉진 정책<sup>214</sup> 등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었고, 4/4분기 중에는 내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소비 개선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자동차<sup>215</sup>를 중심으로, 비내구재는 서적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 소비 비중이 큰 숙박, 여행,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내 소비심리 개선 및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관광경기 회복 흐름에 힘입어 숙박, 레저,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지역 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sup>216</sup>으로, 임대업(렌터카)은 신규 사업장 증설<sup>217</sup> 등으로 증가하였다. 호텔, 골프장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는 관광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sup>212</sup> 제주도는 2026년 지방채 4,500억원 발행을 통한 도로함만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건설업체 대상 240억원 규모 특별신용보증 저금리 대출 지원, 제주형 품셈 개발 등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지원,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지원 등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sup>213</sup> 제주지역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2025년 상반기 74.2% 감소한 데 이어 7~11월 중에도 62.5% 감소하였다.

<sup>214</sup> 2025년 9월 제주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하였다.

<sup>215</sup> 2025년 하반기 중 제주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신한·농협·하나카드 기준) 중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으며 상반기(-5.6%)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sup>216</sup> 제주항공은 2025년 상반기 중 3대의 신규 항공기 도입에 이어 하반기 중 B737-8 항공기 3대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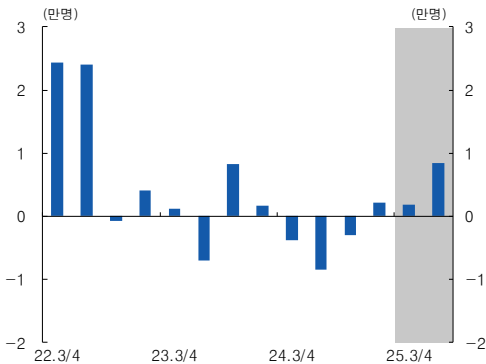
<sup>217</sup> 쏘카는 2025년 12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약 2,400평 규모의 사업장 '쏘카 스테이션'을 신규 개장하였다.

## (4) 고용

### 취업자수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51만명 증가하여 상반기(-0.04만명)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서비스업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sup>218</sup>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sup>219</sup>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임금근로자<sup>220</sup>의 경우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4~50대 중년층은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2~30대 청년층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sup>221</sup>

### 취업자수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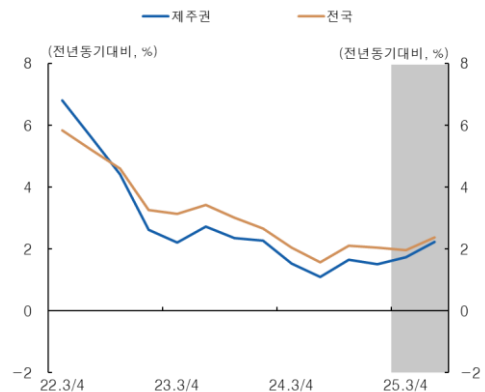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 (5)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2025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0% 올라 상반기(1.6%)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물가는 석유류 및 가공식품 오름세가 지속된 데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반기의 상승폭을 유지하였다.<sup>222</sup>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218</sup> 2025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9.0천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8.7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증가세로 전환하였다.(2025년 상반기 -2.0천명 → 하반기 +6.2천명)

<sup>219</sup> 2025년 하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0.7천명 감소하여 상반기(월평균 -6.0천명)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2025년 상반기 -2.7천명 → 하반기 -0.1천명)

<sup>220</sup> 2025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5.7천명 증가하여 상반기(월평균 +5.6천명)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취업자수 증가세 변화(2025년 상반기 → 하반기, 천명): 상용 +2.9 → -0.1, 임시 +7.0 → +11.0)

<sup>221</sup>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감(2025년 상반기 → 하반기, 천명): (2~30대) -4.7 → +2.6, (4~50대) -3.2 → -4.5, (60대~) +8.3 →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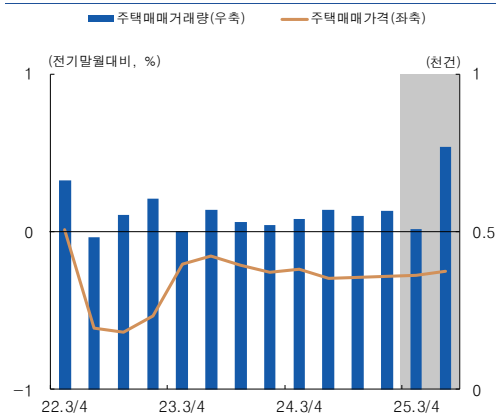
<sup>222</sup>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5년 상반기 →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 농축수산물 0.5 → 4.2, 공업제품 1.9 → 2.3, 전기 가스수도 1.0 → 0.7, 서비스 1.5 → 1.5

## (6)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지속, 거래량 소폭 증가

2025년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 말월 대비 0.13% 내려 상반기(-0.14%)와 비슷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은 7~11월 중 613건으로 상반기보다 증가(+55건)하였고 전년동기대비로도 55건 늘었다. 주택 거래가 외지인 매입<sup>223</sup>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되고 인구 유출 등 구조적 하방 요인이 작용함에 따라 주택매수심리 개선폭<sup>224</sup>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 주택매매가격<sup>1)</sup>과 거래량<sup>2)</sup>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4/4분기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 (7) 인 구

###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규모 확대

2025년 하반기 중 제주지역 인구수(반기말)는 66.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6만명 감소하였다. 한편 출생아수는 7~10월 중 1.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명(7.0%) 늘어나며 상반기(-0.1%)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7~11월 중 -1.2천명으로 순유출 폭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0.26천명), 20대(-0.69천명)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

####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sup>1)</sup>

	2023		2024		2025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명) <sup>2)</sup>	67.5	67.2	67.0	66.7	66.5	(-0.6)
출생아수(백명)	1.5	1.6	1.5	1.6	1.1 <sup>3)</sup>	(0.1)
순이동 <sup>4)</sup>	-0.9	-2.2	-1.2	-3.0	-1.2 <sup>3)</sup>	(-0.2)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7~10월 중, 순이동은 7~11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sup>223</sup> 외지인 주택매매 거래 비중(%): 2024년 상반기 19.7 → 하반기 19.3 → 2025년 상반기 20.0 → 하반기(7~11월) 20.1

<sup>224</sup> 제주지역 주택매매수급지수(한국부동산원)는 하반기 중 91.5로 상반기(90.9)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전국 95.7, 서울 103.0, 8개도 94.3)